

WEBVTT

00:00:10.119 --> 00:00:12.105

안녕하세요?
반갑습니다.

00:00:12.205 --> 00:00:14.717

여러분의 역사 완성자,
류성완입니다.

00:00:14.817 --> 00:00:16.150

너무 너무 반갑습니다.

00:00:16.250 --> 00:00:21.379

좋습니다, 고등 한국사 내신 대비에
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

00:00:21.479 --> 00:00:24.726

제 이름은 류성완이고요.

00:00:24.826 --> 00:00:28.627

강남인강에서 한국사
가르치고 있습니다.

00:00:28.727 --> 00:00:34.709

이 강좌가 공전의 히트를
날렸던 그런 강좌입니다.

00:00:34.809 --> 00:00:38.415

한국사에 대한 관심도
상당히 많은 데다가

00:00:38.515 --> 00:00:42.209

워낙 학생들이 많이 찾아줘서
2년 전에 찍었던 거는

00:00:42.309 --> 00:00:44.854

너무 많이 들었고 약간
시대적 흐름도 지나고 해서

00:00:44.954 --> 00:00:48.843

다시 이번에 새로운
버전으로 찍게 되면서,

00:00:48.943 --> 00:00:53.288

기존 거는 내리게 되었고요,
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.

00:00:53.388 --> 00:00:55.063

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.

00:00:55.163 --> 00:00:56.980

한국사 내신을 준비해야 되겠는데

00:00:57.080 --> 00:01:01.962

류성완 선생님이라는
양반 믿어도 되나?

00:01:02.062 --> 00:01:03.168

믿고 보셔도 됩니다.

00:01:03.268 --> 00:01:07.656
저에 대한 자료는 포털
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검색해보면,

00:01:07.756 --> 00:01:09.939
자료들 나와 있을 거고요.

00:01:10.039 --> 00:01:16.594
아마 한국사 수업으로는 여러분
지루하지 않게 무엇보다 재미있고

00:01:16.694 --> 00:01:22.114
가슴 떨리는 한국사가
제 캐치 프레이즈인데요.

00:01:22.214 --> 00:01:26.729
특히 전근대사보다
이 근현대사 쪽에서

00:01:26.829 --> 00:01:30.279
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

00:01:30.379 --> 00:01:32.627
그리고 이 강좌의 특징에
대해서 말씀드릴게요.

00:01:32.727 --> 00:01:35.451
딱 10강으로 한국사 근현대사 쪽.

00:01:35.551 --> 00:01:38.114
한국사가 총 여섯 단원인데요.

00:01:38.214 --> 00:01:40.506
그중에 세 단원은 전근대사.

00:01:40.606 --> 00:01:44.876
조선 후기까지 세도 정치까지를
전근대라고 하고요.

00:01:44.976 --> 00:01:47.933
그다음에 그 이후의
세 단원을 근현대사 파트.

00:01:48.033 --> 00:01:49.446
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져 있는데요.

00:01:49.546 --> 00:01:53.707
이 강좌는 2학기 내신대비이다
보니까 흥선대원군부터,

00:01:53.807 --> 00:01:56.841
그러니까 세도 정치 이후부터
해서 현대 파트까지

00:01:56.941 --> 00:02:00.544
전부 다 딱 정확히
10강에 끝냅니다.

00:02:00.644 --> 00:02:04.275
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듣기에

상당히 편할 거고요.

00:02:04.375 --> 00:02:09.492

내신 대비로도 좋지만 이거로
수능 준비하는 거 가능합니까?

00:02:09.592 --> 00:02:11.203

되고도 남습니다.

00:02:11.303 --> 00:02:15.287

이거 1, 2학기 있으니까
토탈해서 20강밖에 안 되거든요?

00:02:15.387 --> 00:02:18.436

그러니까 그거 쪽
들으시면 되겠고요.

00:02:18.536 --> 00:02:20.820

내신대비로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

00:02:20.920 --> 00:02:24.561

보통 여기서 제가 한 강 수업하는 게

00:02:24.661 --> 00:02:28.923

아마 학교 선생님 수업으로는
세 강에서 네 강 정도.

00:02:29.023 --> 00:02:32.082

아마 많을 때는 다섯
강까지의 학교 수업을

00:02:32.182 --> 00:02:34.280

제 수업 1시간으로
커버하게 됩니다.

00:02:34.380 --> 00:02:38.883

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을
집약적으로 수업하거든요.

00:02:38.983 --> 00:02:41.254

이거 짹 정리하시고
그렇게 한 거로,

00:02:41.354 --> 00:02:43.694

교과서 내용을 반드시
한번 읽어주세요.

00:02:43.794 --> 00:02:46.343

그런 상태에서 시험 보시면

00:02:46.443 --> 00:02:50.678

대부분 다 좋은 성적
거둘 수 있을 거라 믿고요.

00:02:50.778 --> 00:02:55.129

특히 제 강좌의 특징은 필기?
안 하셔도 됩니다.

00:02:55.229 --> 00:02:57.446

왜요? 제가 이것을
다 드릴 거거든요.

00:02:57.546 --> 00:03:01.572

제 빔 자료가 전부 다 강의
필기 노트로 되어 있습니다.

00:03:01.672 --> 00:03:05.389

약 30장 정도로 구성이
되어져 있고요.

00:03:05.489 --> 00:03:11.284

이것만 보시고 교과서, 그러니까
해당 학교에서 강조하는

00:03:11.384 --> 00:03:14.141

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이
약간씩 다르기 때문에,

00:03:14.241 --> 00:03:19.409

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
준비한다는 자신은 없습니다.

00:03:19.509 --> 00:03:23.765

그렇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
내용은 다 정리해드리기는 해요.

00:03:23.865 --> 00:03:27.539

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,
이거대로 준비하시고.

00:03:27.639 --> 00:03:33.172

아마 이 정도만 복습해도 웬만큼
8, 90점 이상은 다 받으실 텐데.

00:03:33.272 --> 00:03:35.956

그래도 학교에서 내는
킬러 문제라고 하죠?

00:03:36.056 --> 00:03:39.851

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
수업 잘 들어야 되거든요.

00:03:39.951 --> 00:03:43.979

그럴 때 교과서에서
여러분의 학교에 계신

00:03:44.079 --> 00:03:47.783

역사 선생님이 강조했던
파트들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.

00:03:47.883 --> 00:03:52.044

그것만 보시면 아마 대부분
좋은 성적 받을 거라

00:03:52.144 --> 00:03:54.236

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
00:03:54.336 --> 00:03:57.000

이게 빔으로 보기 힘들잖아요?

00:03:57.100 --> 00:04:02.028

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제가

전환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.

00:04:02.128 --> 00:04:06.656
그러니까 여러분은 필기하면서
따라오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한데,

00:04:06.756 --> 00:04:10.218
대부분의 학생들이 되게
다급하게 듣더라고요.

00:04:10.318 --> 00:04:13.339
시험 전전날, 아니면 3일 전.

00:04:13.439 --> 00:04:16.215
이렇게 내신 시험 전에
보통 듣기 때문에,

00:04:16.315 --> 00:04:18.162
필기까지도 제가 그거를 줄여놨어요.

00:04:18.262 --> 00:04:19.430
필기도 안 하셔도 돼요.

00:04:19.530 --> 00:04:25.618
중요한 거는 이 빔 자료를 여러분이
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?

00:04:25.718 --> 00:04:28.660
어떻게 찾냐? 이거 못 찾아서
고생하는 친구들 많거든요.

00:04:28.760 --> 00:04:31.322
이거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.

00:04:31.422 --> 00:04:33.420
이게 강남인강 홈페이지입니다.

00:04:33.520 --> 00:04:34.809
고등부 홈페이지예요.

00:04:34.909 --> 00:04:40.380
그러면 여기 검색란에
류성완이라고 칩니다.

00:04:40.480 --> 00:04:41.777
제 이름이 류성완이죠?

00:04:41.877 --> 00:04:43.803
류성완을 치고 검색을 딱 눌러요.

00:04:43.903 --> 00:04:46.071
그러면 이 화면이 나와요.

00:04:46.171 --> 00:04:49.845
여기 밑에 제 이름이
쭉 나와 있습니다.

00:04:49.945 --> 00:04:54.113
여기 류성완이라고
여러 개가 써져 있는데,

00:04:54.213 --> 00:04:56.004

아무거나 클릭을 하세요.

00:04:56.104 --> 00:05:00.368

그러면 이 화면이 나와요.

00:05:00.468 --> 00:05:03.755

이게 강남인강에서
저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.

00:05:03.855 --> 00:05:06.499

가슴 떨리는 한국사 류성완
선생님, 나와 있죠?

00:05:06.599 --> 00:05:09.488

여기에서 자료실.

00:05:09.588 --> 00:05:14.614

자료실을 클릭하면 제가 그동안
올려놔던 강의 필기 노트가

00:05:14.714 --> 00:05:15.866

썩 올라와 있습니다.

00:05:15.966 --> 00:05:18.981

여기에서 해당되는 거
여러분이 찾아서,

00:05:19.081 --> 00:05:23.807

한국사 강의 필기 내용 아무거나
찾아서 클릭해서 프린트하면 되는데.

00:05:23.907 --> 00:05:28.656

프린트할 때 흑백보다는 컬러로
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.

00:05:28.756 --> 00:05:30.274

이게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.

00:05:30.374 --> 00:05:35.068

그렇게 하면 이거는 별다른
교재도 필요 없고요.

00:05:35.168 --> 00:05:36.664

교재 안 사도 돼요.

00:05:36.764 --> 00:05:38.986

그리고 이 해당 필기 노트는,

00:05:39.086 --> 00:05:42.556

컬러 프린트가 없으면 흑백
프린트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

00:05:42.656 --> 00:05:44.904

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.

00:05:45.004 --> 00:05:47.897

그것만 갖고 해당 수업 잘 들으면

00:05:47.997 --> 00:05:52.264

한국사에서 참고서라든가 문제집 없이

00:05:52.364 --> 00:05:55.534

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
거라고 믿습니다.

00:05:55.634 --> 00:05:58.174

이렇게 간단하게 오티 마쳤고요.

00:05:58.274 --> 00:06:02.248

이제는 본격적으로 류성완의 2학기
한국사 내신 대비 강좌,

00:06:02.348 --> 00:06:03.710

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6:03.810 --> 00:06:05.045

프린트 지금 하셔야 돼요.

00:06:05.145 --> 00:06:06.432

선생님, 1강 듣고 할게요.

00:06:06.532 --> 00:06:13.758

안 돼요, 지금 멈추시고 아까
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은 다음에

00:06:13.858 --> 00:06:18.815

프린트하고 그 프린트한 것을
옆에 딱 놓고 수업 들으면 되겠습니다.

00:06:18.915 --> 00:06:21.612

지금, right now.

00:06:21.712 --> 00:06:24.900

이제 본격적으로
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6:25.000 --> 00:06:26.666

근현대사입니다.

00:06:26.766 --> 00:06:29.574

근현대사를 바로 치고
들어가면 좋겠지만

00:06:29.674 --> 00:06:32.701

그거보다 전에 우리가 하나
해야 될 게 있어요.

00:06:32.801 --> 00:06:36.460

과연 19세기를 전후로
동아시아 지역,

00:06:36.560 --> 00:06:39.368

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떤
움직임들이 있었나?

00:06:39.468 --> 00:06:43.567

전반적인 배경을 살짝
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06:43.667 --> 00:06:47.217

19세기, 20세기 초를

이야기할 때 한마디로,

00:06:47.317 --> 00:06:51.573

전세계적 흐름을 정리할 수
있는 것은 제국주의예요.

00:06:51.673 --> 00:06:56.632

제가 얼마 전에, 지난
2017년 12월에.

00:06:56.732 --> 00:07:00.820

제가 가끔 전국에서
불러주면 강연도 다니고

00:07:00.920 --> 00:07:05.183

해외에서도 제일동포 재단이라든가
해외 한글 학교 같은 데서

00:07:05.283 --> 00:07:06.877

초청이 오면 수업을 나가거든요.

00:07:06.977 --> 00:07:10.019

저는 참고로 학교 교사입니다.

00:07:10.119 --> 00:07:13.345

남양주 동아 고등학교에서
근무하고 있는 역사 교사고요.

00:07:13.445 --> 00:07:17.188

아마 가끔 방송 같은 데서나
혹은 교육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

00:07:17.288 --> 00:07:19.336

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.

00:07:19.436 --> 00:07:21.157

그거 봐주시면 되겠고요.

00:07:21.257 --> 00:07:24.004

가끔 해외 강연을 가게 되면,

00:07:24.104 --> 00:07:29.280

제가 작년에 호주도 가고
이번에는 벨기에에 다녀왔는데.

00:07:29.380 --> 00:07:31.836

잠깐 벨기에에 간 김에
프랑스를 잠깐 들려봤어요.

00:07:31.936 --> 00:07:33.579

루브르 박물관에 잠깐 들렀는데,

00:07:33.679 --> 00:07:37.182

저는 루브르 박물관을 보면서
좋죠, 세계 3대 박물관이고

00:07:37.282 --> 00:07:39.548

워낙 진귀한 것들 많이 있죠.

00:07:39.648 --> 00:07:43.896

그런데 사실 제가 느꼈던 가장

큰 생각은 이거 하나였어요.

00:07:43.996 --> 00:07:46.730
뭔지 아세요?
도둑놈들.

00:07:46.830 --> 00:07:50.877
자기네 문화도 물론 있지만
자기네 문화보다는

00:07:50.977 --> 00:07:55.864
딱 이 시대 때 해외에
가서 갖고 온 거예요.

00:07:55.964 --> 00:08:00.423
소위 말하는 당시의
군사적인 약소국이었던,

00:08:00.523 --> 00:08:04.143
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의
있는 것들을 다 훔쳐왔어요.

00:08:04.243 --> 00:08:05.421
도둑놈들이예요.

00:08:05.521 --> 00:08:09.586
그래놓고 자기 거인냥
자신들의 박물관에 놓은 건데

00:08:09.686 --> 00:08:12.405
저는 개인적으로 찜찜하더라고요.

00:08:12.505 --> 00:08:17.856
이게 참 뭔가, 문화를 이야기할 때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?

00:08:17.956 --> 00:08:21.902
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
조금 찜찜했습니다.

00:08:22.002 --> 00:08:25.628
그들이 좀 더 바른 생각을
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.

00:08:25.728 --> 00:08:28.380
어쨌든 현실이니까, 현실을
배우는 게 역사 아닙니까?

00:08:28.480 --> 00:08:30.585
19세기 전후에서는
제국주의가 있었어요.

00:08:30.685 --> 00:08:32.768
힘이 센 선진 자본국가들.

00:08:32.868 --> 00:08:34.930
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.

00:08:35.030 --> 00:08:39.293
이렇게 대표되는 국가들이
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

00:08:39.393 --> 00:08:42.855

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
침략을 하는 형태를

00:08:42.955 --> 00:08:44.695

우리는 제국주의라고 합니다.

00:08:44.795 --> 00:08:49.486

이런 것을 조금 유식한 용어로
침략적 민족주의라고도 해요.

00:08:49.586 --> 00:08:50.723

이렇게 하는 거죠.

00:08:50.823 --> 00:08:55.146

이들이 식민지로 삼는데 식민지로
삼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.

00:08:55.246 --> 00:09:00.964

자신들이 선진 산업혁명을 성공하고
나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는데

00:09:01.064 --> 00:09:03.238

하다 보니까 원료가 부족해졌어요.

00:09:03.338 --> 00:09:05.076

원료를 빼앗기 위한 장소.

00:09:05.176 --> 00:09:07.785

그다음에 원료를 갖고
와서 이것을 발전시켜서

00:09:07.885 --> 00:09:08.947

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.

00:09:09.047 --> 00:09:12.854

그러면 그것을 팔아먹기
위한, 상품의 판매지로서의

00:09:12.954 --> 00:09:15.832

약소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죠.

00:09:15.932 --> 00:09:19.136

그래서 결과적으로는
이들끼리도 싸워요.

00:09:19.236 --> 00:09:20.418

서로 침략하기 위해서.

00:09:20.518 --> 00:09:23.263

아프리카나 아시아 여러 국가,
아메리카도 들어가겠죠.

00:09:23.363 --> 00:09:24.296

남아메리카 같은 데.

00:09:24.396 --> 00:09:27.492

들어가서 이들끼리 싸우다가
결과적으로 뺨 터졌던 게 뭐예요?

00:09:27.592 --> 00:09:29.011

1차세계대전이고요.

00:09:29.111 --> 00:09:33.334

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
독일이 다시 한 번 터뜨린 게

00:09:33.434 --> 00:09:34.992

2차세계대전이에요.

00:09:35.092 --> 00:09:37.628

그러니까 결과적으로
19세기에서 20세기는

00:09:37.728 --> 00:09:42.354

이렇게 힘있는 국가들이 힘없는
국가들을 빼앗기 위한

00:09:42.454 --> 00:09:47.416

쟁탈전 가운데서 벌어졌던
한 150년, 200년의 역사가

00:09:47.516 --> 00:09:50.356

우리 근현대사라고 해도
사실 과언이 아닙니다.

00:09:50.456 --> 00:09:58.009

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,
서세동점의 시대다.

00:09:58.109 --> 00:10:01.774

서양의 세력이 점점
동쪽으로 다가왔던 시대.

00:10:01.874 --> 00:10:03.961

동쪽에 있는 국가가
아시아 이런 국가잖아요.

00:10:04.061 --> 00:10:06.438

특히 중국, 일본으로 대표되는.

00:10:06.538 --> 00:10:09.578

그래서 포함외교라고도 하는데
포함외교는 뭐냐면,

00:10:09.678 --> 00:10:15.056

이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게
아니라 배에 함포를 실어서

00:10:15.156 --> 00:10:17.735

항구 근처에서 빵빵 쏘요.

00:10:17.835 --> 00:10:22.227

그러면서 위협적으로 외교적인
정책을 펼쳐나갔던 거를

00:10:22.327 --> 00:10:24.171

우리는 포함외교라고 합니다.

00:10:24.271 --> 00:10:25.756

서세동점이라고도 하고요.

00:10:25.856 --> 00:10:28.790

그러한 과정 가운데
청나라가 넘어집니다.

00:10:28.890 --> 00:10:31.898

사실 청나라는
무역적으로는 완벽했어요.

00:10:31.998 --> 00:10:35.438

우리가 지금 made in china
하면 어떻습니까?

00:10:35.538 --> 00:10:37.540

뭔가 싸구려, 이런 생각이 드시죠?

00:10:37.640 --> 00:10:40.645

그런데 여러분, 이런 느낌이 있어요.

00:10:40.745 --> 00:10:43.511

150년 전, 200년 전에
made in china 하면

00:10:43.611 --> 00:10:45.773

유럽 사람들이 가장
갖고 싶어했던 거예요.

00:10:45.873 --> 00:10:53.075

지금의 명품차라든가
아니면 명품 물건들.

00:10:53.175 --> 00:10:55.407

이런 거로 대표되는 게
made in china였어요.

00:10:55.507 --> 00:11:01.235

대표적인 게 청나라의
차라든가, 도자기, 비단.

00:11:01.335 --> 00:11:03.671

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.

00:11:03.771 --> 00:11:07.000

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영국
같은 데서 돈을 주는 거예요.

00:11:07.100 --> 00:11:09.965

그런데 당시의
대형제국이라고 불리면서

00:11:10.065 --> 00:11:13.471

해외에서 가장 완벽한 식민지를
갖고 있었던 영국 입장에서는

00:11:13.571 --> 00:11:15.135

조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.

00:11:15.235 --> 00:11:18.876

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식민지 상태에
놓여있었던 인도를 시켜서

00:11:18.976 --> 00:11:20.199

너네 아편 만들어.

00:11:20.299 --> 00:11:21.649

그러니까 마약 만들게 했던 것이죠.

00:11:21.749 --> 00:11:23.335

그리고 나서 청나라로 들어가게 하고

00:11:23.435 --> 00:11:26.234

이제는 은이 청나라에서
영국으로 빠져나오는

00:11:26.334 --> 00:11:27.695

이러한 형태가 오게 됩니다.

00:11:27.795 --> 00:11:29.440

우리는 이것을
삼각무역이라고 하고요.

00:11:29.540 --> 00:11:31.501

청나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

00:11:31.601 --> 00:11:33.557

아니죠, 한번 저항을 하게 돼서

00:11:33.657 --> 00:11:37.500

너네 왜 우리 아편 안 사냐?
왜 마약 안 사?

00:11:37.600 --> 00:11:43.366

이러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게
1840년에 시작된 1차아편전쟁.

00:11:43.466 --> 00:11:47.043

그 이후 10여 년 뒤에
일어났던 2차아편전쟁 끝에

00:11:47.143 --> 00:11:50.126

이제는 청나라가 열리게
되었던 거죠.

00:11:50.226 --> 00:11:55.942

1차아편전쟁 끝에 난징조약이라는 게
나왔던 것입니다, 1842년.

00:11:56.042 --> 00:11:57.607

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어요.

00:11:57.707 --> 00:12:03.515

그 잘 나가던, 아시아에서 5000년
넘게 문화를 주도했던 청나라가

00:12:03.615 --> 00:12:09.595

서양의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
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.

00:12:09.695 --> 00:12:11.158

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.

00:12:11.258 --> 00:12:14.049

역사 좀 잘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,

00:12:14.149 --> 00:12:17.652

이때 17세기부터 에도막부라는
막부가 시작되거든요.

00:12:17.752 --> 00:12:21.374

이 에도막부는 쉽게 어떤 말이나면,

00:12:21.474 --> 00:12:24.669

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천황이 있어요.

00:12:24.769 --> 00:12:26.125

그렇지만 그거는 상징적 존재고

00:12:26.225 --> 00:12:28.304

실질적으로는 누가
통치를 하는 거냐면,

00:12:28.404 --> 00:12:31.145

에도막부의 짱이었던 쇼군이
통치를 하는 거예요.

00:12:31.245 --> 00:12:35.446

뭐랑 똑같냐면 군사정권이랑
똑같은 거예요.

00:12:35.546 --> 00:12:39.434

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통령
있지만 실질적인 지배자는

00:12:39.534 --> 00:12:44.875

군사권을 갖고 있는 장군이 통치를
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.

00:12:44.975 --> 00:12:49.509

그러한 상태에서 미국의, 이름부터가
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?

00:12:49.609 --> 00:12:53.259

페리, 말 안 들으면 페리.

00:12:53.359 --> 00:12:58.012

너 진짜 패버린다,
진짜 패고 말 거야, 진짜 페리.

00:12:58.112 --> 00:12:59.975

이런 페리 아십니까?

00:13:00.075 --> 00:13:04.791

이름부터 포함 외교를 하다 보니까
이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

00:13:04.891 --> 00:13:06.726

미일화친조약을 맺습니다.

00:13:06.826 --> 00:13:09.522

그런데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
불평등한 조약이거든요.

00:13:09.622 --> 00:13:13.127

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
부족한 쇼군 군인들,

00:13:13.227 --> 00:13:16.798
너네한테 정권을 맡겼는데 이렇게
불평등한 조약을 맺어?

00:13:16.898 --> 00:13:20.683
너네 꺼져, 라고 하면서
존왕양이 나오게 돼요.

00:13:20.783 --> 00:13:25.224
이게 뭐예요? 다시 천황을,
일본의 일왕을 왕으로 앉히자.

00:13:25.324 --> 00:13:27.766
그래서 서양 세력을
막아내자는 운동이에요.

00:13:27.866 --> 00:13:32.566
그것으로 인해서 1868년
메이지유신에 성공하게 됩니다.

00:13:32.666 --> 00:13:37.625
그래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
중에서는 거의 가장 빠르게

00:13:37.725 --> 00:13:40.036
서양화 작업에 들어가요, 여기에서.

00:13:40.136 --> 00:13:41.522
문명개화라고 하거든요.

00:13:41.622 --> 00:13:45.240
그동안 아시아가 갖고 있었던 문명을
서양 쪽으로 개화해버리자.

00:13:45.340 --> 00:13:48.041
바꿔버리자, 라는
움직임이 오게 되고요.

00:13:48.141 --> 00:13:51.626
상대적으로 이 운동이
성공을 거둡니다.

00:13:51.726 --> 00:13:57.770
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시아
국가에서 거의 침략을 받았는데,

00:13:57.870 --> 00:14:01.067
유일할 정도로 그것을 다시 아시아의
주변 국가로 침략하는 형태로.

00:14:01.167 --> 00:14:06.975
2차세계대전에서 한 장면을
차지했던 게 일본이었고

00:14:07.075 --> 00:14:09.992
원자 폭탄 맞고 다시 패전을
하게 되지 않습니까?

00:14:10.092 --> 00:14:11.602
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.

00:14:11.702 --> 00:14:13.234
일본도 이런 상황이었어요.

00:14:13.334 --> 00:14:16.282
이거는 우리만의 일이
아니라 어떤 상황이었다?

00:14:16.382 --> 00:14:20.321
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, 주변 나라에서도
마찬가지 상황이 있었다.

00:14:20.421 --> 00:14:22.067
그런 움직임 보셨으면 좋겠고요.

00:14:22.167 --> 00:14:25.775
이제 본격적으로
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4:25.875 --> 00:14:30.367
여러분 강의 필기 노트
꼭 보셨으면 좋겠고.

00:14:30.467 --> 00:14:33.572
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
앞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.

00:14:33.672 --> 00:14:36.102
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, 여기 있죠.

00:14:36.202 --> 00:14:39.781
이거 특히 제가 전근대사 때도
말씀드렸는데,

00:14:39.881 --> 00:14:42.686
근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해요.

00:14:42.786 --> 00:14:45.004
왜 정말 중요하냐?

00:14:45.104 --> 00:14:49.728
특히 이 근현대사는
150년 정도의 역사가

00:14:49.828 --> 00:14:52.790
지금의 우리 시험 문제에
나오는 거잖아요.

00:14:52.890 --> 00:14:54.758
수능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?

00:14:54.858 --> 00:15:00.408
그런데 앞뒤 사건들 순서만
기억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

00:15:00.508 --> 00:15:01.632
생각보다 많아요.

00:15:01.732 --> 00:15:05.398

그런데 그거를 할 때 여러 번
반복해서 들어도 알 수 있겠지만

00:15:05.498 --> 00:15:07.578
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만
기억하면 돼요.

00:15:07.678 --> 00:15:11.494
다시 한 번,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.

00:15:11.594 --> 00:15:16.214
여기에 자축인묘진사오미 붙이고,

00:15:16.314 --> 00:15:17.876
이게 10개, 이게 12개.

00:15:17.976 --> 00:15:22.379
10와 12의 최소공배수가 몇이예요?
60이죠.

00:15:22.479 --> 00:15:23.479
그래서 60갑자예요.

00:15:23.579 --> 00:15:24.785
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.

00:15:24.885 --> 00:15:26.750
갑자년,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.

00:15:26.850 --> 00:15:29.910
그런데 그거는 필요없고
떠는 12개니까

00:15:30.010 --> 00:15:33.265
지금의 십진법 형태로 하다보면
이게 매번 바뀌는데요.

00:15:33.365 --> 00:15:34.477
이거는 아니야.

00:15:34.577 --> 00:15:38.539
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으로
시작되는 역사 용어는

00:15:38.639 --> 00:15:41.710
언제나 끝의 연도가
4년이에요, 이거 기억하세요.

00:15:41.810 --> 00:15:43.204
이 밑에 4 써놓고.

00:15:43.304 --> 00:15:46.293
을은 5, 병은 6,
정은 7, 무는 8, 기는 9,

00:15:46.393 --> 00:15:50.662
경은 0, 신은 1,
임은 2, 계는 3이에요.

00:15:50.762 --> 00:15:52.443
하나씩 한 번 해볼까요?

00:15:52.543 --> 00:15:54.468

갑으로 시작되는 역사
용어 한번 대봐요.

00:15:54.568 --> 00:15:56.231

갑신정변, 1884년.

00:15:56.331 --> 00:15:58.954

갑오개혁, 1894년.

00:15:59.054 --> 00:16:02.546

을미개혁, 1895년.

00:16:02.646 --> 00:16:05.599

을사조약, 1905년.

00:16:05.699 --> 00:16:09.853

병인양요, 1866년.

00:16:09.953 --> 00:16:16.457

정미칠조약, 1907년.

00:16:16.557 --> 00:16:21.751

무오독립선언, 1918년.

00:16:21.851 --> 00:16:25.327

기미독립선언, 1919년.

00:16:25.427 --> 00:16:28.772

경술국치, 1910년.

00:16:28.872 --> 00:16:31.968

신미양요, 1871년.

00:16:32.068 --> 00:16:35.844

임오군란 1882년.

00:16:35.944 --> 00:16:40.186

계, 이게 근현대사
파트에서 계가 별로 없어.

00:16:40.286 --> 00:16:44.444

여러분 계로 시작되는 역사 용어
아는 거는 세조가 왕 될 때,

00:16:44.544 --> 00:16:47.681

조선 시대 때 왕
됐던 반란 있었죠?

00:16:47.781 --> 00:16:49.023

그게 뭐예요? 계유정난이라고 하죠.

00:16:49.123 --> 00:16:51.918

그게 언제입니까?
1453년이에요.

00:16:52.018 --> 00:16:56.087

어쨌든 중요한 거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,
이거 짝 써놓고요.

00:16:56.187 --> 00:17:00.310
무조건 밑에 4 써놓고 쪽 하면 돼,
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.

00:17:00.410 --> 00:17:01.803
이거 알면 정말 좋아.

00:17:01.903 --> 00:17:03.539
이거 정말 중요해요.

00:17:03.639 --> 00:17:06.862
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나올 때
제가 이거 더 말씀드릴 거예요.

00:17:06.962 --> 00:17:10.808
이거는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한다?
그냥 외우면 돼.

00:17:10.908 --> 00:17:12.175
알아두시면 돼요.

00:17:12.275 --> 00:17:14.036
그다음에 그게 있어요.

00:17:14.136 --> 00:17:18.644
이거 한번 잘 준비하면 내신에서
분명히 좋은 성적받을 거거든요.

00:17:18.744 --> 00:17:20.920
자신 있으면 바로
뭐에도 도전해봐라?

00:17:21.020 --> 00:17:22.750
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.

00:17:22.850 --> 00:17:29.102
이 정도 내용만 들어주면 1학기
내신대비, 2학기 내신대비 정도 듣고

00:17:29.202 --> 00:17:32.408
한국사능력검정시험,
이거 고급도 찍어봤고

00:17:32.508 --> 00:17:34.965
중급은 지금 찍고 있거든요.

00:17:35.065 --> 00:17:36.769
그거 충분히 준비하셔도 됩니다.

00:17:36.869 --> 00:17:38.872
가능하면 고급으로 보셔도 돼요.

00:17:38.972 --> 00:17:42.716
60점 맞으면 2급 되기
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중에

00:17:42.816 --> 00:17:44.572
꼭 한번 봐주면 좋겠고.

00:17:44.672 --> 00:17:48.669
또 하나 제가 야심차게,

강남인강에서 허락해줘서

00:17:48.769 --> 00:17:50.081
준비 중인 게 뭐가 있습니까?

00:17:50.181 --> 00:17:53.128
드라마랑 역사로 공부하는 한국사,
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

00:17:53.228 --> 00:17:58.493
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
초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,

00:17:58.593 --> 00:18:01.332
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는
방법을 알았냈어요.

00:18:01.432 --> 00:18:03.534
그게 뭘니까?
저만의 연기로.

00:18:03.634 --> 00:18:06.070
제가 대부분 다 봤던 드라마나
영화로 수업할 거거든요.

00:18:06.170 --> 00:18:09.309
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,
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.

00:18:09.409 --> 00:18:11.063
여러분 많이 성원해주시고

00:18:11.163 --> 00:18:15.493
나오게 되면 재미있게 편안하게
들어주면 되겠습니다.

00:18:15.593 --> 00:18:18.074
어쨌든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,
너무 중요하다.

00:18:18.174 --> 00:18:20.267
꼭입니다.

00:18:20.367 --> 00:18:22.458
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18:22.558 --> 00:18:26.972
일단 근현대사 파트는,

00:18:27.072 --> 00:18:33.343
그러니까 전체 한국사라고 하면
2개로 나뉘진다고 했었죠?

00:18:33.443 --> 00:18:37.611
전근대사랑 근현대사, 이렇게
나뉘진다고 했었죠?

00:18:37.711 --> 00:18:40.021
2학기는 근현대 파트입니다.

00:18:40.121 --> 00:18:43.468

근현대도 사실 시기 구분을 하면
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.

00:18:43.568 --> 00:18:49.996
1863년, 홍선대원군의 집권부터
1910년까지의 역사가 있고요.

00:18:50.096 --> 00:18:54.916
그다음에 1910년부터
1945년까지 역사.

00:18:55.016 --> 00:18:59.439
그다음에 1945년부터
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역사.

00:18:59.539 --> 00:19:02.855
이렇게 3개 정도로 시대 구분을
할 수 있을 것 같은데,

00:19:02.955 --> 00:19:06.264
여기에서도 연표적인
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는

00:19:06.364 --> 00:19:08.035
뭐니뭐니해도 이 첫 번째거든요.

00:19:08.135 --> 00:19:11.495
그래서 이거의 흐름을
먼저 잡아드리고

00:19:11.595 --> 00:19:15.283
홍선대원군과 강화도조약으로
가도록 하겠습니다.

00:19:15.383 --> 00:19:16.485
첫 번째 가볼게요.

00:19:16.585 --> 00:19:19.872
1863년, 이 앞에는
어떤 시대였습니까?

00:19:19.972 --> 00:19:21.779
세도 정치 시대였습니다.

00:19:21.879 --> 00:19:23.242
세도 정치는 어떤 시대였죠?

00:19:23.342 --> 00:19:25.939
매관매직이 나타나고
몇몇 힘있는 가문들이

00:19:26.039 --> 00:19:28.749
자신들의 모든 권력을
독점하게 되면서

00:19:28.849 --> 00:19:32.221
관직을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,
시세가 있었어요.

00:19:32.321 --> 00:19:35.157
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농민에

대한 수탈로 이루어지게 되었고

00:19:35.257 --> 00:19:37.853

농민들은 삼정의 문란
등등으로 인해서

00:19:37.953 --> 00:19:39.651

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

00:19:39.751 --> 00:19:42.343

그들은 저항했죠, 그래서
홍경래의 난이라든가

00:19:42.443 --> 00:19:45.414

임술농민봉기 같은 게
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?

00:19:45.514 --> 00:19:48.590

그러한 것을 한방에
정리했던 사나이가 있었으니

00:19:48.690 --> 00:19:51.389

홍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

00:19:51.489 --> 00:19:54.941

홍선대원군 딱 듣는 순간
여러분의 평가 어떻습니까?

00:19:55.041 --> 00:19:56.888

이거 잠시 뒤에 가서 합시다.

00:19:56.988 --> 00:19:58.039

지금은 흐름 잡는 거니까.

00:19:58.139 --> 00:20:02.278

홍선대원군은 1863년부터
1873년까지

00:20:02.378 --> 00:20:06.938

정확히 딱 10년 동안
정치를 했습니다.

00:20:07.038 --> 00:20:10.219

대내적으로는 당시의 삼정의 문란,

00:20:10.319 --> 00:20:13.027

이런 것들을 시정하기
위한 민생 안정책.

00:20:13.127 --> 00:20:16.185

또 세도 정치 때는 왕권이 센 거예요,
약한 거예요? 약한 거죠.

00:20:16.285 --> 00:20:19.268

몇몇 힘이 있는 가문들이
좌지우지 했던 시대 아닙니까?

00:20:19.368 --> 00:20:22.252

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,
이런 게 있었고요.

00:20:22.352 --> 00:20:25.209

대외적으로는 이때 막 이양선,

00:20:25.309 --> 00:20:29.397

이양선은 이상한 모양의
배라는 거예요.

00:20:29.497 --> 00:20:33.395

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
있었던 배의 인식과는 다른,

00:20:33.495 --> 00:20:35.067

서양의 배는 좀 다르지
않았겠습니까?

00:20:35.167 --> 00:20:39.463

그런 배들이 침몰해서
무역하자고 하니까

00:20:39.563 --> 00:20:42.324

대외 위기감이 고조돼 있었거든요.

00:20:42.424 --> 00:20:45.885

그래서 이런 것을 통상수교를
거부하는 정책.

00:20:45.985 --> 00:20:49.021

이거를 과거에는
쇄국정책이라고 했는데,

00:20:49.121 --> 00:20:51.130

쇄국정책은 약간 부정적인
의미가 있기 때문에

00:20:51.230 --> 00:20:55.740

그런 용어보다는 최근에는
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이었다.

00:20:55.840 --> 00:20:57.322

이렇게 이야기 합니다.

00:20:57.422 --> 00:21:01.035

그러다가 10년 간의
움직임을 뒤로 하고

00:21:01.135 --> 00:21:03.213

홍선대원군은 역사의
뒤안길로 사라지고요.

00:21:03.313 --> 00:21:08.068

그리고 나서 1873년 이후에는,

00:21:08.168 --> 00:21:10.379

이제는 우리도 뭔가 개화를
해야 되는 거 아니야?

00:21:10.479 --> 00:21:13.487

그 신호탄이 뭐였습니까?
강화도조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.

00:21:13.587 --> 00:21:16.312

1876년에서 82년까지입니다.

00:21:16.412 --> 00:21:19.703

강화도조약 누구랑 맺었죠?

일본하고 맺었죠.

00:21:19.803 --> 00:21:25.228

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
형태에서 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.

00:21:25.328 --> 00:21:30.049

그래서 1876년부터
1882년까지의 이 기간을

00:21:30.149 --> 00:21:33.507

우리는 개화정책 추진기 내지는
개화 추진기라고 합니다.

00:21:33.607 --> 00:21:35.748

이때 나왔던 게 뭐가 있을까요?

00:21:35.848 --> 00:21:41.448

통리기무아문이라는 개화 정책
기구도 있었을 거고요.

00:21:41.548 --> 00:21:45.993

그다음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
같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.

00:21:46.093 --> 00:21:50.169

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
기존의 구식 군인들은

00:21:50.269 --> 00:21:54.010

차별 대우를 받게 되면서 그들이
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

00:21:54.110 --> 00:21:59.596

1882년, 2로 끝날 때 시작되는
역사 용어 뭐라고요? 임.

00:21:59.696 --> 00:22:04.032

선생님, 그러면 혹시 임진왜란도?
1592년이잖아요.

00:22:04.132 --> 00:22:06.747

임오군란?
1882년이라고요.

00:22:06.847 --> 00:22:09.075

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

00:22:09.175 --> 00:22:11.619

임오군란은 어디에
진압을 당하게 돼요?

00:22:11.719 --> 00:22:13.159

청에 진압을 당하게 되었고요.

00:22:13.259 --> 00:22:17.115

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갑신정변 역시

청에 진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

00:22:17.215 --> 00:22:18.812
이거는 되게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.

00:22:18.912 --> 00:22:21.632
왜? 원래 우리나라 개화에
주도했던 거는 어디라고요?

00:22:21.732 --> 00:22:22.954
일본이라고.

00:22:23.054 --> 00:22:25.906
그런데 임오군란,
갑신정변이 연이어서

00:22:26.006 --> 00:22:27.595
청나라에 진압을 당하게 되면서

00:22:27.695 --> 00:22:30.933
이제는 우리나라에 쟁탈전을
주고 우리에 주도권을 두고

00:22:31.033 --> 00:22:33.184
어디랑 어디랑 부딪히는
상황이었습니까?

00:22:33.284 --> 00:22:36.288
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 안에서
대립되는 상태였다고요.

00:22:36.388 --> 00:22:40.381
이러한 상태에서 뭐가
일어나게 되었습니까?

00:22:40.481 --> 00:22:44.824
우리나라 안에서 동학농민운동이
일어나게 돼요.

00:22:44.924 --> 00:22:49.125
동학농민운동을 당시의
우리나라 민 씨 정권에서는

00:22:49.225 --> 00:22:50.918
그거를 제대로 커버할 수가
없었습니다.

00:22:51.018 --> 00:22:52.723
그래서 어디에 지원을 요청하죠?

00:22:52.823 --> 00:22:55.895
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는데
그 청나라가 들어올 때

00:22:55.995 --> 00:22:57.250
일본도 같이 들어와요.

00:22:57.350 --> 00:23:02.490
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와 일본이
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.

00:23:02.590 --> 00:23:05.853

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?

청일전쟁이라고 하죠.

00:23:05.953 --> 00:23:12.606

그리고 나서 일본 중심의

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

00:23:12.706 --> 00:23:14.877

이런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

00:23:14.977 --> 00:23:17.852

어쨌든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?

일본이 이겨요.

00:23:17.952 --> 00:23:22.340

그 조약이 뭐니까?

이름부터가 거시기하죠.

00:23:22.440 --> 00:23:24.378

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.

00:23:24.478 --> 00:23:28.349

시모노세키 조약에서

일본이 이기게 되면서

00:23:28.449 --> 00:23:32.128

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

누가 간섭하게 되었습니까?

00:23:32.228 --> 00:23:33.795

일본이 간섭하게 되었습니다.

00:23:33.895 --> 00:23:36.466

특히 시모노세키조약의 내용

중에서 뭐가 있습니까?

00:23:36.566 --> 00:23:41.505

일본의 랴오둥반도,

랴오둥반도가 어디냐면

00:23:41.605 --> 00:23:44.040

여기있는 거예요.

00:23:47.689 --> 00:23:51.095

이게 랴오둥반도고

이게 산둥반도거든요.

00:23:51.195 --> 00:23:53.669

이 랴오둥반도가 어디한테

떨어지는 거예요?

00:23:53.769 --> 00:23:55.204

일본한테 떨어지는 것이죠.

00:23:55.304 --> 00:23:58.362

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간섭해

들어오게 됩니까? 러시아.

00:23:58.462 --> 00:24:01.011

러시아가 혼자 들어오기

민망하니까 친구들을 불러요.

00:24:01.111 --> 00:24:02.666
프랑스, 독일 이런 애들 불러.

00:24:02.766 --> 00:24:04.250
야, 뒤에 서 있어,
내가 말 다할게.

00:24:04.350 --> 00:24:09.399
일본 이리와 봐,
청나라가 덩치도 큰데

00:24:09.499 --> 00:24:11.961
이것도 뺏겨서 얼마나 슬프겠어?
빨리 돌려줘.

00:24:12.061 --> 00:24:13.344
막 간섭하는 거예요.

00:24:13.444 --> 00:24:16.524
그러자 일본이, 일본의
무서운 점이 이런 거죠.

00:24:16.624 --> 00:24:20.088
나처럼 흥분 잘하는
사람이랑 한 판 붙어.

00:24:20.188 --> 00:24:22.435
그런데 양보를 해요.

00:24:22.535 --> 00:24:26.852
양보하면서 돈을 더 받아내죠.

00:24:26.952 --> 00:24:29.582
그리고 나서 러시아와의
전쟁을 준비합니다.

00:24:29.682 --> 00:24:31.502
무려 10년 동안.

00:24:31.602 --> 00:24:34.116
그리고 1904년에
러시아랑도 전쟁을 벌이죠.

00:24:34.216 --> 00:24:35.913
어쨌든 삼국간섭 딱 해요.

00:24:36.013 --> 00:24:40.706
러시아가 와서 말 몇 마디하니까
일본 애들이 겁먹어서 간 거예요.

00:24:40.806 --> 00:24:41.790
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

00:24:41.890 --> 00:24:43.662
우리나라에서는 친러화가 되고요.

00:24:43.762 --> 00:24:50.065
친러화가 되는 과정에서
당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

00:24:50.165 --> 00:24:54.462

일본 중심의 정책을
펼쳐나갔던 민 씨 정권.

00:24:54.562 --> 00:24:57.359

민 씨 정권의 가장 핵심이었던 누구?
명성황후.

00:24:57.459 --> 00:24:59.640

왕비 민 씨가 어떻게 됩니까?

00:24:59.740 --> 00:25:05.136

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
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

00:25:05.236 --> 00:25:07.170

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

00:25:07.270 --> 00:25:10.146

그리고 나서 그해 개혁이
을미개혁이고요.

00:25:10.246 --> 00:25:14.161

이 흐름만 이해하시면
여기 파트는 진짜 쉬워.

00:25:14.261 --> 00:25:19.598

그러한 상태에서 당시의
왕이었던 고종은

00:25:19.698 --> 00:25:22.414

아내가 이렇게 비참한
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.

00:25:22.514 --> 00:25:25.562

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
어디로 가게 됩니까?

00:25:25.662 --> 00:25:27.051

러시아로 간 게 아닙니다.

00:25:27.151 --> 00:25:29.911

우리나라 안에 있는
러시아 공사관입니다.

00:25:30.011 --> 00:25:33.222

당시의 러시아를
아라사국이라고 불렀거든요.

00:25:33.322 --> 00:25:36.855

그래서 그거를 줄여서
아라고 불렀어요.

00:25:36.955 --> 00:25:39.714

보통 아라고 나오면, 이 시대는
러시아를 이야기합니다.

00:25:39.814 --> 00:25:44.925

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
자신의 처소를 옮겼던 것입니다.

00:25:45.025 --> 00:25:47.722

그거를 뭐라 그래요?
아관파천이라고 하죠.

00:25:47.822 --> 00:25:52.129

그리고 나서 97년도에 오면서
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되었고요.

00:25:52.229 --> 00:25:56.294

이때쯤, 같은 시기
1896년에 우리나라 안에서

00:25:56.394 --> 00:26:00.698

자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
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.

00:26:00.798 --> 00:26:04.576

이제는 민중의 힘으로 우리가
바로 서야 된다고 주장했던

00:26:04.676 --> 00:26:08.612

립협회, 립협회 독립협회가
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

00:26:08.712 --> 00:26:11.453

이 움직임, 너무나 시험
문제에 많이 나오는 파트죠.

00:26:11.553 --> 00:26:14.861

그리고 나서 10년 간
전쟁 준비했던 일본이

00:26:14.961 --> 00:26:18.790

1904년에 러일전쟁을
일으키게 되었고요.

00:26:18.890 --> 00:26:22.391

이 러일전쟁 과정 가운데서
우리나라에 한일의정서 강조하고요.

00:26:22.491 --> 00:26:26.766

제 1차 한일협약, 그리고
나서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

00:26:26.866 --> 00:26:29.173

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,
이런 사람들이 왔었고.

00:26:29.273 --> 00:26:33.962

그러한 와중에 전쟁이 유리한
측면으로 가게 됩니다.

00:26:34.062 --> 00:26:36.064

그리고 나서 가쓰라 테프트 밀약,

00:26:36.164 --> 00:26:38.878

2차 영일동맹, 포츠모스
조약 한 다음에

00:26:38.978 --> 00:26:43.505

을사늑약을 1905년에
강제하게 되었던 것이죠.

00:26:43.605 --> 00:26:46.477

을사늑약은 외교권
박탈과 통관부 설치.

00:26:46.577 --> 00:26:48.219

이런 것들이 있고요.

00:26:48.319 --> 00:26:49.825

이게 불법적인 내용 아닙니까?

00:26:49.925 --> 00:26:51.559

그래서 어떻게 해요?

00:26:51.659 --> 00:26:54.454

네덜란드 헤이그에 우리
특사를 파견하죠.

00:26:54.554 --> 00:26:59.119

그렇지만 헤이그특사로
인해서 고종은 퇴위당하고

00:26:59.219 --> 00:27:01.859

역시 한일신협약, 이게
정미7조약입니다.

00:27:01.959 --> 00:27:04.259

그리고 나서 우리나라
군대가 해산되면서

00:27:04.359 --> 00:27:09.032

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나타나게
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.

00:27:09.132 --> 00:27:11.243

이거 움직임 잡아줘야지.

00:27:11.343 --> 00:27:12.600

되셨나요?
하실 수 있겠어요?

00:27:12.700 --> 00:27:18.270

이 흐름만 일단 해줘도 웬만한
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.

00:27:18.370 --> 00:27:22.999

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
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7:23.099 --> 00:27:27.531

홍선대원군이 왜 등장하게
되었나, 한번 가볼게요.

00:27:27.631 --> 00:27:30.040

세도정치, 이거 기억나시죠?

00:27:30.140 --> 00:27:32.825

세도정치가 세도가들이
정치한다는 거 아닙니까?

00:27:32.925 --> 00:27:34.877

유력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
다 갖고 있는 거예요.

00:27:34.977 --> 00:27:36.965

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고요.

00:27:37.065 --> 00:27:40.080

정상적인 관직 임용
시스템이 아니에요.

00:27:40.180 --> 00:27:43.205

여기에 안동김씨라든가
풍양조씨 이런 사람들한테

00:27:43.305 --> 00:27:45.098

돈 갖다 주면 그냥
바로 관리되는 거예요.

00:27:45.198 --> 00:27:47.512

그게 뭐니까?
매관매직.

00:27:47.612 --> 00:27:49.482

돈 주고 자리를 사고
팔고 하는 겁니다.

00:27:49.582 --> 00:27:51.966

이거는 결과적으로 농민의
수탈로 이어지게 되었고.

00:27:52.066 --> 00:27:53.831

삼정의 문란이 나오게 되었다.

00:27:53.931 --> 00:27:55.848

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등장합니까?

00:27:55.948 --> 00:27:57.501

홍선대원군이 등장합니다.

00:27:57.601 --> 00:28:00.649

이거 뭐 제가 책 장사 하는 것
같은데, 책은 안 사도 됩니다.

00:28:00.749 --> 00:28:06.485

인터넷으로 제 이름 검색하면 제가
쓴 책이 한 권 나올 겁니다.

00:28:06.585 --> 00:28:08.421

제목이 청춘의 완터뷰.

00:28:08.521 --> 00:28:10.851

제가 근현대사 인물 8명을 골라서

00:28:10.951 --> 00:28:14.578

가상의 인터뷰를 하는 형태로
시작을 했던 겁니다.

00:28:14.678 --> 00:28:20.257

물론 재판도 찍지 못한

레이템이에요, 몇 권 없어요.

00:28:20.357 --> 00:28:25.989

이제는 절판까지는 아니지만
어쨌든 2년 전에 나왔는데,

00:28:26.089 --> 00:28:27.316

많이 팔리지는 않았습시다.

00:28:27.416 --> 00:28:31.959

생각보다 재미있는데 책이 너무
안 팔려서 안타까움은 있지만.

00:28:32.059 --> 00:28:36.122

홍선대원군이 첫 번째
인터뷰의 대상자예요.

00:28:36.222 --> 00:28:42.563

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홍선대원군에
대한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.

00:28:42.663 --> 00:28:44.884

일단 생각해보십시오.

00:28:44.984 --> 00:28:48.475

홍선대원군 듣는 순간
어때요, 이미지가?

00:28:48.575 --> 00:28:57.710

약간 고집스러운 할배?
약간 그런 느낌 있나요?

00:28:57.810 --> 00:29:01.936

그런데 여러분,
홍선대원군의 정책들을 보면

00:29:02.036 --> 00:29:07.849

저에게 만약에 선생님, 선생님이
그래도 역사 수업도 많이 하시고

00:29:07.949 --> 00:29:10.148

가르치시고 공부하는 분인데

00:29:10.248 --> 00:29:15.434

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를 잘했던
인물 딱 1명만 골라주십시오.

00:29:15.534 --> 00:29:18.298

정치력이 뛰어났던 인물
1명만 골라주십시오.

00:29:18.398 --> 00:29:20.284

이렇게 묻는다면,

00:29:20.384 --> 00:29:27.697

저는 조선 전기 임금의 롤모델
중에 롤모델, 세종대왕.

00:29:27.797 --> 00:29:31.408

조선 후기의 가장 똑똑했던
바로 그 이름, 정조.

00:29:31.508 --> 00:29:36.899

그리고 그 외에 많은 유명한
왕들 있지 않습니까?

00:29:36.999 --> 00:29:42.104

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저는
홍선대원군을 꼽겠습니다.

00:29:42.204 --> 00:29:46.742

그 이유? 그가 활동했던
시기는 불과 10년이에요.

00:29:46.842 --> 00:29:52.754

그런데 그가 했던 일들 제가
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.

00:29:52.854 --> 00:29:56.247

일단 그는 내가 볼 때 추정
아이큐는 200이 넘어.

00:29:56.347 --> 00:29:57.582

대단한 사람이야.

00:29:57.682 --> 00:30:00.787

첫 번째 비변사를
혁파해서 없애버립니다.

00:30:00.887 --> 00:30:03.185

왕권강화,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는데.

00:30:03.285 --> 00:30:05.028

일단 첫 번째 왕권강화에서 비변사.

00:30:05.128 --> 00:30:06.966

비변사는 원래 뭐라고 했었죠?

00:30:07.066 --> 00:30:11.515

변방의 임시군사기구로 시작되었다고.

00:30:11.615 --> 00:30:13.659

중종 때 시작됐다가
명종 때 상설기구가 되고

00:30:13.759 --> 00:30:16.325

선조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
최고 권력기구가 되는데,

00:30:16.425 --> 00:30:18.873

세도정치 때 진짜
최고 권력기구예요.

00:30:18.973 --> 00:30:20.028

여기서 별거 다해요.

00:30:20.128 --> 00:30:24.147

세자빈의 간택 문제, 국가
중요 행사의 결정 유무.

00:30:24.247 --> 00:30:25.778

여기서 다 결정하는 거야.

00:30:25.878 --> 00:30:29.581

그러니까 정상적인 다른
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

00:30:29.681 --> 00:30:31.479

모든 일을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.

00:30:31.579 --> 00:30:35.305

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제대로
돌아가지 않았던 거겠죠,

00:30:35.405 --> 00:30:36.842

그래서 비변사를 아예 없애버려요.

00:30:36.942 --> 00:30:40.158

그리고 나서 정치는 의정부에 맡기고

00:30:40.258 --> 00:30:43.447

정치는 삼군부에 맡겨서
처리하게 했습니다.

00:30:43.547 --> 00:30:45.787

그리고 법전 편찬도 하죠.

00:30:45.887 --> 00:30:51.791

대전회동, 육전조례 같은
책들도 편찬합니다.

00:30:51.891 --> 00:30:55.585

그리고 나서 이거 형광펜.

00:30:55.685 --> 00:30:58.440

서원정리, 서원을 줄여요.

00:30:58.540 --> 00:31:02.034

조선 후기 때 서원이 몇 개 정도
있었다고 했죠? 1000여 개.

00:31:02.134 --> 00:31:06.218

그거를 영조가 몇 개까지 줄입니까?
600여 개로 줄입니다.

00:31:06.318 --> 00:31:10.493

600여 개로 줄일 때 그 당시에
영조가 왕에서 쫓겨날뻔해요.

00:31:10.593 --> 00:31:13.798

그러니까 1000개에서 600여
개로 줄일 때도 쫓겨날뻔해.

00:31:13.898 --> 00:31:19.047

그런데 이 시대 때
600여 개가 넘던 서원을

00:31:19.147 --> 00:31:22.150

47개만 남기고 전부
다 줄어버려요.

00:31:22.250 --> 00:31:24.618

그러니까 막 당시 사람들이

가만히 있었겠습니까?

00:31:24.718 --> 00:31:28.428
조선 유생들 도끼들고 와서 도끼로
나 찍어라, 이러고 있어요.

00:31:28.528 --> 00:31:33.686
그런데 그때 홍선대원군이
뭐라고 하는지 알아요?

00:31:33.786 --> 00:31:36.022
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

00:31:36.122 --> 00:31:38.334
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는
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.

00:31:38.434 --> 00:31:39.875
이렇게 이야기해요.

00:31:39.975 --> 00:31:42.733
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유교 사상
중에 가장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

00:31:42.833 --> 00:31:45.075
공자가 지금 이 땅에
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

00:31:45.175 --> 00:31:47.290
백성에게 해악을 끼치면 나는
절대 용서하지 않겠다.

00:31:47.390 --> 00:31:49.782
하물며 너네들?
다 죽어버릴 거야.

00:31:49.882 --> 00:31:51.072
이렇게 이야기하죠.

00:31:51.172 --> 00:31:54.224
제가 볼 때 다른 정책도
다른 정책이지만

00:31:54.324 --> 00:31:55.883
이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.

00:31:55.983 --> 00:31:58.284
그다음에 임진왜란 때
우리나라를 도와줬던

00:31:58.384 --> 00:32:02.850
명나라의 황제를 기리는
장소가 있었거든요.

00:32:02.950 --> 00:32:06.513
그게 만동요라고 하는데요,
그 만동요도 없애버려요.

00:32:06.613 --> 00:32:09.109
그리고 무엇보다 임진왜란 때
불타 없어져서

00:32:09.209 --> 00:32:16.867
조선 시대의 정통성이나 이런 게
조금씩 부정받고 있었던 경복궁.

00:32:16.967 --> 00:32:20.991
임진왜란 이후 그 어떤
왕도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

00:32:21.091 --> 00:32:23.945
답을 못하고 있을 때
홍선대원군은 시작합니다.

00:32:24.045 --> 00:32:25.751
그러니까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?

00:32:25.851 --> 00:32:30.341
그래서 원납전, 원납전은 원에서
납부하는 돈이라는 이야기거든요.

00:32:30.441 --> 00:32:34.418
그런데 원통하게 납부하는
돈으로 바뀌어버려요.

00:32:34.518 --> 00:32:37.562
너 돈 안 내?
그래, 그렇게 해봐.

00:32:37.662 --> 00:32:40.692
이런 식이죠, 그러니까
상당히 카리스마 있게.

00:32:40.792 --> 00:32:43.131
약간 과정에서 문제는
있기는 했어요.

00:32:43.231 --> 00:32:45.929
또 하나, 당백전.

00:32:46.029 --> 00:32:48.120
당시의 백 배에 달하던 화폐인데요.

00:32:48.220 --> 00:32:49.734
문제가 있었어요, 이게
물가상승을 가져와요.

00:32:49.834 --> 00:32:52.446
물가상승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
있어서 살짝 도와드리겠습니다.

00:32:52.546 --> 00:33:00.025
여러분, 환율이라는 거는
화폐, 즉 돈이 있고요.

00:33:00.125 --> 00:33:03.744
그다음에 여기 물건이 있습니다.

00:33:03.844 --> 00:33:05.889
경제적 용어로는 재화라고도 하죠.

00:33:05.989 --> 00:33:11.019

이게 100개가 있고 물건이
100개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.

00:33:11.119 --> 00:33:17.064
지금 당백전, 화폐의 양이
늘어난 거 아닙니까?

00:33:17.164 --> 00:33:19.799
이 시장 안에서 화폐가 양이
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.

00:33:19.899 --> 00:33:21.273
이게 200개가 됐어요.

00:33:21.373 --> 00:33:25.250
그러면 그 전에는 1:1 교환이죠?

00:33:25.350 --> 00:33:26.991
돈 하나 주면 물건 하나 주는 거죠.

00:33:27.091 --> 00:33:28.476
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

00:33:28.576 --> 00:33:31.758
화폐를 2개 주면 돈을
하나 받는 형태 아닙니까?

00:33:31.858 --> 00:33:33.445
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

00:33:33.545 --> 00:33:37.809
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할까요?

00:33:37.909 --> 00:33:41.368
예전에는 물건 하나 주면
돈 하나 받았어요.

00:33:41.468 --> 00:33:44.467
그런데 이제는 물건 하나
주면 돈을 2개 받네요.

00:33:44.567 --> 00:33:45.871
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

00:33:45.971 --> 00:33:51.914
물건의 가치가 상승한 거죠.

00:33:52.014 --> 00:33:53.152
이게 물가상승이에요.

00:33:53.252 --> 00:33:54.536
그러면 반대 상황도 있습니까?

00:33:54.636 --> 00:33:56.683
조선 후기에 전황이
있었다고 했잖아요.

00:33:56.783 --> 00:33:58.773
화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.

00:33:58.873 --> 00:34:01.282

50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봅시다.
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

00:34:01.382 --> 00:34:06.749
이제는 돈을 하나 주면
물건을 2개 받는 형태.

00:34:06.849 --> 00:34:08.462
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?

00:34:08.562 --> 00:34:14.702
예전에는 물건 하나 주면
화폐 하나를 줬는데

00:34:14.802 --> 00:34:17.393
이제는 물건을 2개 줘야 화폐를
하나 받을 수 있잖아요.

00:34:17.493 --> 00:34:21.341
물가하락 형태입니다, 이거를
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.

00:34:21.441 --> 00:34:25.500
물가상승이랑 같은
말이 화가하락이에요.

00:34:25.600 --> 00:34:30.550
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인데,
우리가 화가는 잘 안 써요.

00:34:30.650 --> 00:34:32.048
물건의 가치로 쓰거든요.

00:34:32.148 --> 00:34:33.933
그러니까 주로 물가상승이라는 것인데.

00:34:34.033 --> 00:34:36.122
물가상승되면 좋아요, 나빠요?

00:34:36.222 --> 00:34:39.268
적당한 물가상승은 좋습니다.

00:34:39.368 --> 00:34:41.596
경제 발전에 적당한
물가상승은 좋아요.

00:34:41.696 --> 00:34:43.333
그런데 여러분, 그거 아시죠?

00:34:43.433 --> 00:34:45.677
다음 달에 버스비 오르는 거.

00:34:45.777 --> 00:34:48.013
1500원인가, 오른다는데?

00:34:48.113 --> 00:34:49.984
걱정하지 마세요,
저 지금 거짓말했어요.

00:34:50.084 --> 00:34:52.425
그런데 듣는 순간 어때요?

00:34:52.525 --> 00:34:55.333

버스비 올랐다고 듣는
순간 어땠어요?

00:34:55.433 --> 00:35:00.091

짜증나, 또 올라?
이렇게 나왔죠?

00:35:00.191 --> 00:35:01.755

딱 그거야.

00:35:01.855 --> 00:35:08.847

버스비 오르는지 저는 몰라요,
그냥 잠깐 거짓말한 거야.

00:35:08.947 --> 00:35:11.917

중요한 거는 물가상승이
그렇게 오르게 되면

00:35:12.017 --> 00:35:15.103

일반적으로 누구한테 가장 큰
어려움이 오게 됩니까?

00:35:15.203 --> 00:35:17.489

일반 백성들이 불만을 느끼게 돼요.

00:35:17.589 --> 00:35:21.534

이게 결과적으로 홍선대원군이
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.

00:35:21.634 --> 00:35:25.211

사실 제가 인터뷰할 때
홍선대원군한테 물어봤어요.

00:35:25.311 --> 00:35:29.295

아니, 당신처럼 똑똑하고
정치력 좋은 사람이

00:35:29.395 --> 00:35:31.607

왜 이것을 이렇게 못했습니까?

00:35:31.707 --> 00:35:35.039

이렇게 했을 때 홍선대원군이
그말을 하더라고요.

00:35:35.139 --> 00:35:38.185

류 선생님, 내가 그 정도
생각 못했겠습니까?

00:35:38.285 --> 00:35:39.981

그런데 그거 아세요?

00:35:40.081 --> 00:35:45.544

경복궁을 다 지어가, 공정률이 80%
정도 됐을 때 큰 불이 나요.

00:35:45.644 --> 00:35:47.622

그래서 거의 제로가 돼.

00:35:47.722 --> 00:35:49.877

안 지을 수도 없어,
다시 짓기 시작해요.

00:35:49.977 --> 00:35:51.834
그러다가 또 한 번 불이 나요.

00:35:51.934 --> 00:35:53.212
큰 불이 두 번이 나요.

00:35:53.312 --> 00:35:57.375
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국가
재정을 몇 배를 써버려요.

00:35:57.475 --> 00:36:00.596
또 이 당시 홍선대원군이
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?

00:36:00.696 --> 00:36:04.538
홍선대원군이 난을
그렇게 잘 그렸대요.

00:36:04.638 --> 00:36:07.705
난 계속 그려, 그래서
막 갖다 팔아.

00:36:07.805 --> 00:36:11.874
이게 얼마처럼 보이시오, 김 대감?

00:36:11.974 --> 00:36:13.290
만 냥..

00:36:13.390 --> 00:36:14.543
어허!

00:36:14.643 --> 00:36:16.044
2만 냥 드리겠습니다.

00:36:16.144 --> 00:36:18.663
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
깡패에 가까웠죠.

00:36:18.763 --> 00:36:22.272
그럼에도 불구하고
돈이 부족한 거야.

00:36:22.372 --> 00:36:24.025
그러니까 이것을
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.

00:36:24.125 --> 00:36:27.777
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,
짓던 거를 안 지을 수는 없었다.

00:36:27.877 --> 00:36:32.195
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달라,
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.

00:36:32.295 --> 00:36:35.210
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이렇게
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

00:36:35.310 --> 00:36:37.191
그리고 민생안정책, 완벽했습니다.

00:36:37.291 --> 00:36:39.047
일단 전정, 군정, 환곡.

00:36:39.147 --> 00:36:43.507
전정, 전정은 땅 세금을
10분의 1만 걷는 게 아니라

00:36:43.607 --> 00:36:45.430
엄청나게 더 많이 걷는 거예요.

00:36:45.530 --> 00:36:47.230
그러다 보니까 은결색출.

00:36:47.330 --> 00:36:50.211
은결색출은 감춰져 있던
땅을 만드는 거예요.

00:36:50.311 --> 00:36:54.908
저기 산골짜기에 있는
땅이 아니라 이런 거야.

00:36:55.008 --> 00:36:57.036
분명히 농사는 짓고 있는데

00:36:57.136 --> 00:37:00.252
국가 토지대장에 땅으로
기록돼있지 않은 거예요.

00:37:00.352 --> 00:37:05.032
그냥 몰래 세금은 안 내면서
짓고 있던 땅이겠죠.

00:37:05.132 --> 00:37:07.248
그런 거를 색출하게 되면
어떻게 되는 거예요?

00:37:07.348 --> 00:37:09.877
일반민들한테 세금을 좀 적게
걷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?

00:37:09.977 --> 00:37:12.737
그다음에 유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

00:37:12.837 --> 00:37:15.982
강제로 토지를 합병하는 것을
막아내기도 했었고요.

00:37:16.082 --> 00:37:19.946
그다음에 군정, 사실 시험 문제에는
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.

00:37:20.046 --> 00:37:21.055
군정이 뭐니까?

00:37:21.155 --> 00:37:25.365
이때 태어난 지 일주일 된
남자애한테 군포 징수하고요.

00:37:25.465 --> 00:37:29.805

죽은 지 3년 지난
사람들한테도 군포를 징수하고

00:37:29.905 --> 00:37:31.700

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.

00:37:31.800 --> 00:37:34.690

왜? 이때 농민에 대한
수탈이 많았던 시대니까.

00:37:34.790 --> 00:37:38.453

이런 게 막 자행되고 있었던 말이야.

00:37:38.553 --> 00:37:41.762

그래서 이것을 막기
위해서 어떻게 합니까?

00:37:41.862 --> 00:37:45.596

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합니다.
이게 뭐예요?

00:37:45.696 --> 00:37:48.172

호포제라는 거는
이 호 자가 집 호 자거든요.

00:37:48.272 --> 00:37:51.321

집집마다 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.

00:37:51.421 --> 00:37:53.589

그런데 양반도 집이 있어요, 없어요?
있죠.

00:37:53.689 --> 00:37:56.350

원래 조선 시대 때는 양반한테는
군포 안 걷었거든요.

00:37:56.450 --> 00:37:58.780

그런데 이때는 양반도 집이 있으니까

00:37:58.880 --> 00:38:02.604

집집마다 군포를 내니까
양반들도 군포를 부과하게 되는

00:38:02.704 --> 00:38:04.300

이러한 상태에 오게
되었던 것이고요.

00:38:04.400 --> 00:38:05.689

그다음에 환곡제.

00:38:05.789 --> 00:38:07.887

환곡제는 원래는 되게
좋은 제도였어요.

00:38:07.987 --> 00:38:10.685

이게 고구려 때
진대법에서도부터 시작되어서

00:38:10.785 --> 00:38:13.706

고려 시대 때 흑창,

의창 이런 거 있었고.

00:38:13.806 --> 00:38:15.877

조선 시대 때도 쪽
내려와서 좋았던 거예요.

00:38:15.977 --> 00:38:19.628

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
금융 시스템을 가져왔던 것이죠.

00:38:19.728 --> 00:38:25.831

그래서 봄에 곡식 빌려줬다가
이자 조금 해서 가을에 갚으라는 거였는데.

00:38:25.931 --> 00:38:28.688

이거를 농민수탈해야
되니까 어떻게 해요?

00:38:28.788 --> 00:38:31.125

필요도 없다는데 막 빌려줘.

00:38:31.225 --> 00:38:32.800

억지로 막 빌려줘.

00:38:32.900 --> 00:38:35.591

그런데 빌려줄 때 쌀 다 썩은 거,
반은 모래 섞인 거.

00:38:35.691 --> 00:38:36.851

이런 거 줘요.

00:38:36.951 --> 00:38:42.057

그리고 나서 가을 추수철이 되면
2배, 3배, 4배씩 받아요.

00:38:42.157 --> 00:38:43.653

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.

00:38:43.753 --> 00:38:46.302

이런 것을 불과 몇 년만에 사창제.

00:38:46.402 --> 00:38:48.391

이거는 마을 마을마다
마을 유력자들이

00:38:48.491 --> 00:38:51.212

이거를 공무원들한테 맡기지
않고 마을 유력자들이

00:38:51.312 --> 00:38:53.298

자체적으로 실시하는
사창제로 바뀌어버립니다.

00:38:53.398 --> 00:38:58.112

그래서 전정, 군정, 환곡도
사실은 그 어려웠던 삼정문란도

00:38:58.212 --> 00:39:01.211

정말로 어렵지 않게
단시간에 끝내버려요.

00:39:01.311 --> 00:39:05.232

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
문제는 다 정리가 됩니다.

00:39:05.332 --> 00:39:10.644

그런데 조금 아주 고퀄리티의
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거.

00:39:10.744 --> 00:39:14.476

이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 중에서

00:39:14.576 --> 00:39:19.786

양반들의 반발을 가져왔던 거,
한번 체크해볼까요?

00:39:19.886 --> 00:39:23.232

첫째, 서원정리.
이거 당연하겠죠.

00:39:23.332 --> 00:39:25.424

만동묘 폐지, 마찬가지입니다.

00:39:25.524 --> 00:39:26.553

경복궁중건.

00:39:26.653 --> 00:39:28.025

선생님, 경복궁중건은 왜요?

00:39:28.125 --> 00:39:34.607

이거 조선의 당시 전통을
다시 살리는 건데 왜요?

00:39:34.707 --> 00:39:38.448

경복궁을 중건하려면 엄청나게 큰 나무
같은 것들을 가져와야 되거든요.

00:39:38.548 --> 00:39:41.324

양반들의 묘지림이나
이런 것들을 훼손하게 돼요.

00:39:41.424 --> 00:39:43.744

그래서 경복궁 중건도
일반민들이 힘들어했었고요.

00:39:43.844 --> 00:39:45.401

호포제, 당연히 반발이 심했겠죠.

00:39:45.501 --> 00:39:52.137

이중에서 그러면 일반민들한테,
일반 백성들한테

00:39:52.237 --> 00:39:54.606

불만이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?

00:39:54.706 --> 00:39:56.555

서원? 아니야.
만동묘? 아니야.

00:39:56.655 --> 00:39:59.252

경복궁 중건은 당연히 들어갑니다.

00:39:59.352 --> 00:40:03.473

왜요? 이것 때문에 당백전으로
인해서 물가상승이

00:40:03.573 --> 00:40:06.009

일반민들에게 피해가
왔다 그랬잖아요.

00:40:06.109 --> 00:40:08.206

나머지는 다 좋아했다.

00:40:08.306 --> 00:40:11.877

그래서 일반민들한테 가장 피해가
왔던 거는 경복궁 중건이고.

00:40:11.977 --> 00:40:14.672

양반들도 반발했던 거는
경복궁 중건이고.

00:40:14.772 --> 00:40:16.760

서원 폐지, 만동묘 폐지, 호포제.

00:40:16.860 --> 00:40:17.890

이런 게 들어간다 거.

00:40:17.990 --> 00:40:20.889

이 정도만 알아두면 여기에서
틀릴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.

00:40:20.989 --> 00:40:22.266

틀릴 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.

00:40:22.366 --> 00:40:25.406

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,
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.

00:40:25.506 --> 00:40:29.816

서원 철폐에 대해서
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40:29.916 --> 00:40:34.586

사족이 있는 곳마다 평민을 못살게
굴지만 서원이 가장 심하였다.

00:40:34.686 --> 00:40:38.016

대원군이 명령을 내려서 나라
안 서원을 모두 허물고

00:40:38.116 --> 00:40:39.884

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.

00:40:39.984 --> 00:40:43.202

진실로 백성에게,
이 멘트 기가막히지 않습니까?

00:40:43.302 --> 00:40:45.277

진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있으면

00:40:45.377 --> 00:40:48.945

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
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.

00:40:49.045 --> 00:40:55.836

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
선유를 제사하는 곳인데

00:40:55.936 --> 00:40:58.921

도둑의 소굴이 뒀에 있어서라.

00:40:59.021 --> 00:41:02.213

드디어 형조와 한성부의
나출들을 어서 대궐 문 앞에서

00:41:02.313 --> 00:41:07.524

호소하려는 선비를 강건너로
몰아내 버렸다.

00:41:07.624 --> 00:41:10.306

이렇게 서원 철폐에 대해서
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
00:41:10.406 --> 00:41:12.971

이 지문은 상당히 잘
나오고 있어요.

00:41:13.071 --> 00:41:15.508

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.

00:41:15.608 --> 00:41:19.909

이게 바로 당백전입니다.

00:41:20.009 --> 00:41:25.762

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재원을
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

00:41:25.862 --> 00:41:29.046

명목치가 상평통보의
100배의 가치래요.

00:41:29.146 --> 00:41:32.455

그러니까 고액 화폐가 나오다
보니까 화폐량이 늘어나게 되었고

00:41:32.555 --> 00:41:34.337

이것으로 인해서 뭐가
나오게 되었다?

00:41:34.437 --> 00:41:38.980

물가상승이 따라나오게
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도

00:41:39.080 --> 00:41:41.600

같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.

00:41:41.700 --> 00:41:43.640

호포제 실시로 나타난
군포 부담층의 변화.

00:41:43.740 --> 00:41:44.957

이것도 한번 볼게요.

00:41:45.057 --> 00:41:49.640

호포제는 양반, 상민의 구분 없이 호를 기준으로 군포를

00:41:49.740 --> 00:41:53.164
평등하게 거두는 것으로 각 호당 2냥의 호포를 징수하였다.

00:41:53.264 --> 00:41:54.833
호포제 실시로, 이게 중요하죠.

00:41:54.933 --> 00:41:59.331
양반도 군포를 납부하게 되어 납부층이 크게 늘었다.

00:41:59.431 --> 00:42:02.949
그러니까 호포제 실시 이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

00:42:03.049 --> 00:42:09.721
양반들은 면제층이었어요, 전 국민 50% 가까이 되는.

00:42:09.821 --> 00:42:11.105
노비도 안 되고.

00:42:11.205 --> 00:42:14.350
그러니까 일반 양인들의 15%가 이것만 내다 보니까

00:42:14.450 --> 00:42:16.321
그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,

00:42:16.421 --> 00:42:18.254
이제는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?

00:42:18.354 --> 00:42:23.223
납부층 양반, 양인 74%까지 올리게 되면서

00:42:23.323 --> 00:42:28.750
15%가 납부하던 거는 74%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?

00:42:28.850 --> 00:42:30.838
5배 가까이 늘었던 거 아닙니까?

00:42:30.938 --> 00:42:34.051
일반민들 입장에서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

00:42:34.151 --> 00:42:38.040
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,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

00:42:38.140 --> 00:42:41.982
또 하나, 흥선대원군의 문제하면

00:42:42.082 --> 00:42:46.991
사실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많이 나와요.

00:42:47.091 --> 00:42:51.745
글씨가 좀 작죠?
크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42:51.845 --> 00:42:53.883
큰 게 없군요,
작은 형태로 갑시다.

00:42:53.983 --> 00:42:57.811
여기 한번 볼게요,
1886년입니다.

00:42:57.911 --> 00:43:01.643
1886년에 병인박해라는 게
있었습니다.

00:43:01.743 --> 00:43:04.048
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
제가 홍선대원군이랑

00:43:04.148 --> 00:43:06.485
대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?

00:43:06.585 --> 00:43:08.927
홍선대원군이 이것을 그렇게
후회를 많이 하더라고.

00:43:09.027 --> 00:43:15.519
왜냐하면 홍선대원군이 사랑하는
딸이 카톨릭 신자였어요.

00:43:15.619 --> 00:43:17.829
홍선대원군의 아내도 그렇습니다.

00:43:17.929 --> 00:43:27.381
그리고 본인 역시 상당히 서학,
즉 카톨릭 종교에 대해서

00:43:27.481 --> 00:43:29.788
되게 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

00:43:29.888 --> 00:43:31.398
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

00:43:31.498 --> 00:43:33.511
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

00:43:33.611 --> 00:43:35.505
홍선대원군이 왕이
되자마자 뭐 했어요?

00:43:35.605 --> 00:43:38.397
서원 철폐하고 사람들
반대하고 있었잖아요.

00:43:38.497 --> 00:43:43.423
그러니까 당시의 양반 유생 층에서는

00:43:43.523 --> 00:43:46.217
홍선대원군을 곱게 불 리

없었겠죠, 초기에.

00:43:46.317 --> 00:43:49.219
그런데 마침 이 사건이 터진
거예요, 병인박해가 터진 거예요.

00:43:49.319 --> 00:43:52.677
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이런 거죠.

00:43:52.777 --> 00:43:55.950
불만이 많은 양반 세력이
홍선대원군한테 그러니까.

00:43:56.050 --> 00:44:02.908
혹시 당신 카톨릭 신자라는
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?

00:44:03.008 --> 00:44:04.700
이렇게 묻는 거죠.

00:44:04.800 --> 00:44:06.346
여러분, 그거 아시죠?

00:44:06.446 --> 00:44:11.176
학교 같은 데에서도 있다보면 남자,
여자 씹타는 애들이 있어.

00:44:11.276 --> 00:44:13.635
약간 그런 게 있어요.

00:44:13.735 --> 00:44:17.153
그런데 갑자기 어떤 애들이
야, 너 개 좋아하냐?

00:44:17.253 --> 00:44:19.617
이렇게 물어봐요, 남자애들이.

00:44:19.717 --> 00:44:23.024
그러면 그냥 아니야라고
하면 되는데,

00:44:23.124 --> 00:44:25.678
진짜 씹을 타고 있고
약간 마음이 있던 애들한테

00:44:25.778 --> 00:44:27.505
야 너 개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야?
물어보면,

00:44:27.605 --> 00:44:34.823
야, 개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.
아니야, 아니라고!

00:44:34.923 --> 00:44:37.291
이런 애들 있죠?
홍선대원군이 그랬어.

00:44:37.391 --> 00:44:45.497
당신 지금 카톨릭에 대해서 약간
유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?

00:44:45.597 --> 00:44:49.299

저 아닙니다, 그런 거 아니고
정상적으로 정치하겠습니다.

00:44:49.399 --> 00:44:52.176

이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
어떻게 합니까?

00:44:52.276 --> 00:44:55.458

갑자기 이때 알레르기
반응을 보여요.

00:44:55.558 --> 00:44:59.359

나 아니야, 나 카톨릭
정말 싫어해.

00:44:59.459 --> 00:45:01.338

그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려.

00:45:01.438 --> 00:45:05.069

야, 프랑스인들 다 죽여.
신도 다 처형해.

00:45:05.169 --> 00:45:06.086

이렇게 된 거예요.

00:45:06.186 --> 00:45:08.698

사실 이거를 홍선대원군이
되게 슬퍼하더라고.

00:45:08.798 --> 00:45:12.904

왜? 이때 자기가 너무
세게 나가버리면서

00:45:13.004 --> 00:45:17.575

양반 유생층으로부터는 우호적인
여론을 갖고 오게 되었지만,

00:45:17.675 --> 00:45:20.789

그다음부터 합리성을 잃어버려요,
이 하나의 사건으로.

00:45:20.889 --> 00:45:23.487

이게 바로 통상수교거부
정책에 대한 시작이었고.

00:45:23.587 --> 00:45:27.939

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그가
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든가

00:45:28.039 --> 00:45:32.564

대내적으로는 상당히 잘했던 정치가
다 묻혀버리게 되는 사건.

00:45:32.664 --> 00:45:36.724

상당히 아까운 그런 장면이
이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.

00:45:36.824 --> 00:45:41.098

무엇보다 홍선대원군을 생각할 때
가끔 이런 사람 나오죠.

00:45:41.198 --> 00:45:50.039
파락호였다, 그가 상가집 개였었다.

00:45:50.139 --> 00:45:55.905
워낙에 당시 안동김씨 세력들이
왕족들을 다 죽이고 있었는데,

00:45:56.005 --> 00:45:59.050
그가 미친 사람처럼
역할을 살아남았다고

00:45:59.150 --> 00:46:00.606
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.

00:46:00.706 --> 00:46:02.101
드라마도 그런 게 많았었고.

00:46:02.201 --> 00:46:03.416
그런데 아닙니다.

00:46:03.516 --> 00:46:08.069
제가 책 쓰면서 자료를 찾아 보니까,
그랬던 사료적 근거가 없어요.

00:46:08.169 --> 00:46:13.260
그냥 운형궁의 봄이라는
소설책에 그렇게 그려졌는데

00:46:13.360 --> 00:46:15.560
그게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
그려졌던 겁니다.

00:46:15.660 --> 00:46:20.297
그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노련한
상태로 해나갔던 것이지

00:46:20.397 --> 00:46:23.103
상가집 개나 파락호였다,
이런 거는 아닙니다.

00:46:23.203 --> 00:46:27.316
어쨌든 그가 아들이 왕에 올라가면서

00:46:27.416 --> 00:46:31.751
12살에 아들 고종이
왕에 올라가게 되면서

00:46:31.851 --> 00:46:33.773
10년 동안 정치를 해나갔어요.

00:46:33.873 --> 00:46:35.839
그래서 대원군이라는 용어가
있던 것이잖아요.

00:46:35.939 --> 00:46:37.321
나는 왕이 아니지만

00:46:37.421 --> 00:46:41.860
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붙인
호칭이 대원군이거든요.

00:46:41.960 --> 00:46:43.957

그리고 나서 10년 동안
정치를 하게 되는데,

00:46:44.057 --> 00:46:45.661

처음에는 너무 세게 나갑니다.

00:46:45.761 --> 00:46:50.202

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
있었던 프랑스 신부 9명과

00:46:50.302 --> 00:46:51.891

신도 8000명을 처형해요.

00:46:51.991 --> 00:46:54.526

이게 이름하여 병인박해입니다.

00:46:54.626 --> 00:46:56.317

이 병인박해가 이루어지니까,

00:46:56.417 --> 00:46:58.967

그 소식을 들었던 프랑스
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

00:46:59.067 --> 00:47:00.238

가만히 안 있었죠.

00:47:00.338 --> 00:47:02.663

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.

00:47:02.763 --> 00:47:05.673

프랑스하면 베르사유의
장미, 이런 거 유명하죠?

00:47:05.773 --> 00:47:11.600

로즈라는 이름을 가진 제독이
우리나라에 쳐들어왔었고요.

00:47:11.700 --> 00:47:13.261

강화도에 쳐들어왔습니다.

00:47:13.361 --> 00:47:16.301

그래서 문수산성에서
한성근이라는 분이,

00:47:16.401 --> 00:47:20.654

그다음에 정족산성의 양헌수라는
분이 맞서 싸웁니다.

00:47:20.754 --> 00:47:25.798

그렇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
외규장각 의궤가 약탈된다는 거.

00:47:25.898 --> 00:47:31.885

물론 2011년에 영구 임대
형태로 반환이 되기는 하지만,

00:47:31.985 --> 00:47:34.145

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.

00:47:34.245 --> 00:47:35.823
이거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.

00:47:35.923 --> 00:47:38.359
하나 더, 같은 해였습니다.

00:47:38.459 --> 00:47:42.669
1866년, 그러니까 병인박해
이후 미국의 상선이었던

00:47:42.769 --> 00:47:45.489
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었어요.

00:47:45.589 --> 00:47:49.181
청나라에 가서 물건 잘
팔고 들어오는 김에

00:47:49.281 --> 00:47:52.896
우리나라 대동강을
따라 쪽 올라옵니다.

00:47:52.996 --> 00:47:54.961
또 강 이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.

00:47:55.061 --> 00:47:58.690
1강이니까 제가 설명을
드리고 갈게요.

00:48:00.527 --> 00:48:04.229
우리가 한국사 문제 풀다보면
강 이름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.

00:48:04.329 --> 00:48:07.034
이게 한강인지는 다 알죠, 우리가.

00:48:07.134 --> 00:48:09.273
이게 낙동강, 이거까지는 압니다.

00:48:09.373 --> 00:48:11.219
그리고 역사상 많이 나오는 게

00:48:11.319 --> 00:48:14.892
이 강이랑 이 강이 있어요.

00:48:14.992 --> 00:48:17.804
이게 압록강이고 이게 두만강입니다.

00:48:17.904 --> 00:48:21.721
그리고 나서 평양이라는 도시를
지나가는 강이 있는데요.

00:48:21.821 --> 00:48:23.604
이게 대동강이에요.

00:48:23.704 --> 00:48:28.652
이 대동강이랑 압록강 사이에 흐르는
강 청천강이라는 강도 있었습니다.

00:48:28.752 --> 00:48:32.966
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강이
바로 이 대동강입니다.

00:48:33.066 --> 00:48:36.050
대동강을 쪽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.

00:48:36.150 --> 00:48:39.743
그러자 당시의 평양
감사였던 박규수에 의해서

00:48:39.843 --> 00:48:43.805
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
없어지게 되는 전소되는

00:48:43.905 --> 00:48:45.298
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

00:48:45.398 --> 00:48:51.002
그리고 나서 5년 뒤,
1871년에 미국이 신미양요.

00:48:51.102 --> 00:48:53.276
신미년에 신미양요.

00:48:53.376 --> 00:48:56.865
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왔던
것을 뭐라고 합니까?

00:48:56.965 --> 00:48:58.616
신미양요라고 하고요.

00:48:58.716 --> 00:49:01.438
여기서는 광성보에서, 지명이죠.

00:49:01.538 --> 00:49:06.317
광성보에서 어재연이라는
장군이 로저스 제독을

00:49:06.417 --> 00:49:07.888
막아내게 되었습니다.

00:49:07.988 --> 00:49:10.601
최근에 벌어졌던 일 중에,

00:49:10.701 --> 00:49:15.286
제가 야구 한화 이글스 팬이거든요.

00:49:15.386 --> 00:49:16.901
한화 이글스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

00:49:17.001 --> 00:49:18.564
사람들이 되게 애처롭게 바라봅니다.

00:49:18.664 --> 00:49:23.109
저는 89년 이후로 꾸준히
한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.

00:49:23.209 --> 00:49:27.658
제가 11살, 12살 때 빙그레
이글스 어린이 회원이었거든요.

00:49:27.758 --> 00:49:30.936
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30년

님께 응원하고 있는데,

00:49:31.036 --> 00:49:33.987

참 요즘에는 안타까운
상황인데.

00:49:34.087 --> 00:49:37.032

우리 한화 이글스의 자랑, 한화
이글스가 배출한 선수 중에서

00:49:37.132 --> 00:49:39.349

가장 유명한 사람이
류현진 선수 아닙니까?

00:49:39.449 --> 00:49:42.248

얼마 전에 배지현 아나운서랑
결혼도 했는데.

00:49:42.348 --> 00:49:48.843

류현진 선수가 있는 팀이 어디죠?
LA다저스.

00:49:48.943 --> 00:49:53.298

2017년도 메이저리그에서
장차 월드시리즈에서

00:49:53.398 --> 00:49:57.930

준우승을 차지했던 팀인데,
다저스, LA 다저스.

00:49:58.030 --> 00:50:01.354

로저스, 로저스 제독이라는
사람이었어요.

00:50:01.454 --> 00:50:05.067

프랑스에서는 장미,
이런 거 유명하잖아요.

00:50:05.167 --> 00:50:07.006

로즈 제독이 왔었고요.

00:50:07.106 --> 00:50:13.301

여기서는 LA 다저스,
로저스 제독이라는 양반이

00:50:13.401 --> 00:50:16.106

미국 사람이 우리나라
공격해왔습니다.

00:50:16.206 --> 00:50:18.079

광성보에 어재연 장군이 나갔고요.

00:50:18.179 --> 00:50:24.304

이때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라는 것을
미국에 빼앗겼다가

00:50:24.404 --> 00:50:26.805

다시 우리가 되찾아오기도 했었죠.

00:50:26.905 --> 00:50:29.526

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.

00:50:29.626 --> 00:50:33.341
순서가 일단 첫 번째, 병인박해가
제일 먼저 있었어요.

00:50:33.441 --> 00:50:36.764
그다음에 제너럴 셔먼호,
다 같은 해입니다, 1866년.

00:50:36.864 --> 00:50:38.292
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해,

00:50:38.392 --> 00:50:41.581
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
근처에 있었거든요.

00:50:41.681 --> 00:50:43.563
그래서 바로 쳐들어옵니다.

00:50:43.663 --> 00:50:49.299
그리고 나서 1868년도에
오페르트라는 독일의 상인이 있었는데,

00:50:49.399 --> 00:50:51.368
이 사람이 국제적
도굴단을 만들어내요.

00:50:51.468 --> 00:50:54.332
딱 보니까 지금의 조선에서는
가장 누가 힘이 있어 보여요?

00:50:54.432 --> 00:50:56.697
홍선대원군이 힘이 있어 보이는데,

00:50:56.797 --> 00:50:58.571
홍선대원군의 가장 약점이 뭘까?

00:50:58.671 --> 00:51:03.124
그들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

00:51:03.224 --> 00:51:05.856
이 조상에 대한 칭찬, 이런 거를
되게 중요하게 여긴다.

00:51:05.956 --> 00:51:08.648
그래서 홍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

00:51:08.748 --> 00:51:13.950
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고
했다가 실패하게 돼요.

00:51:14.050 --> 00:51:17.404
이게 바로 오페르트
도굴 미수사건이에요.

00:51:17.504 --> 00:51:21.822
충청도 덕산이라는 곳의 남연군
묘를 도굴하다가 실패하게 되는데,

00:51:21.922 --> 00:51:27.102
애네가 이것을 갖고 간 다음에

뭐하려고 했던 거야?

00:51:27.202 --> 00:51:30.490
엄청난 양의 황금을 요구해야지.

00:51:30.590 --> 00:51:36.205
이러고 있다가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고 걸리게 되거든요.

00:51:36.305 --> 00:51:37.913
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

00:51:38.013 --> 00:51:41.614
서양 놈들은 인간이 아니구만, 저 쓰레기들.

00:51:41.714 --> 00:51:46.906
오히려 척화사상이 더욱더 강화하게 되었고요.

00:51:47.006 --> 00:51:51.013
그러고 나서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가 보냈는데 안 왔던 거예요.

00:51:51.113 --> 00:51:55.437
그래서 왜 안 오는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대동강에서 불 타 없어졌대요.

00:51:55.537 --> 00:51:59.354
그래서 5년 정도 지나서 미국이 다시 왔던 게 뭘니까?

00:51:59.454 --> 00:52:00.944
신미양요.

00:52:01.044 --> 00:52:03.149
일단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.

00:52:03.249 --> 00:52:07.157
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 로즈 제독, 로저스 제독.

00:52:07.257 --> 00:52:10.194
이 제독들의 이름,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.

00:52:10.294 --> 00:52:13.246
보통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겁니다.

00:52:13.346 --> 00:52:18.238
한성근 장군, 양헌수 장군이 활약했던

00:52:18.338 --> 00:52:21.203
어재연 장군이 활약했던, 어재연 장군의 장소가 어디죠?

00:52:21.303 --> 00:52:23.352
광성보다,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.

00:52:23.452 --> 00:52:25.218

그런데 이거는 어떻게
기억하면 되냐면,

00:52:25.318 --> 00:52:27.640

여기가 다 강화도였어요.

00:52:27.740 --> 00:52:29.744

병인양요나 신미양요가
다 강화도였습니다.

00:52:29.844 --> 00:52:31.993

강화도 바닷가 가면 회 먹어야겠죠.

00:52:32.093 --> 00:52:34.553

어떤 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?

00:52:34.653 --> 00:52:37.499

광어야, 더 필요 없어.
광어 맛있어.

00:52:37.599 --> 00:52:39.182

제 아내는 광어를 제일 좋아해요.

00:52:39.282 --> 00:52:40.911

회는 무조건 광어만 있는 줄 알아.

00:52:41.011 --> 00:52:42.741

광어, 광성보의 어재연.

00:52:42.841 --> 00:52:44.749

광성보의 어재연.

00:52:44.849 --> 00:52:46.641

광어 먹으면 됩니다.

00:52:46.741 --> 00:52:49.163

그런데 여러분이 광어를
먹으러 왔어요.

00:52:49.263 --> 00:52:55.325

여러분 친구랑 같이 먹는데,
그 친구가 엄청 먹는 거예요.

00:52:55.425 --> 00:53:01.104

그래서 여기 보시면,

00:53:01.204 --> 00:53:03.839

이름 중에 문수산성의 한성근.

00:53:03.939 --> 00:53:06.137

혹시 문성근 씨라고 아세요?

00:53:06.237 --> 00:53:07.808

지금은 작품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

00:53:07.908 --> 00:53:10.557

예전에 그것이 알고싶다라는
작품도 있었고.

00:53:10.657 --> 00:53:12.971

지금은 영화에서도 많이
활동을 하시는데.

00:53:13.071 --> 00:53:16.183

문성근 씨랑 여러분이 광어를
같이 먹고 있는데,

00:53:16.283 --> 00:53:18.565

문성근 씨가 회를
너무 많이 먹는 거야.

00:53:18.665 --> 00:53:19.725

그러면 한마디 해줘야
될 거 아니야.

00:53:19.825 --> 00:53:21.303

그 맛있는 회가 없어지는데.

00:53:21.403 --> 00:53:24.858

아 진짜 문성근 씨,
정량만 드세요.

00:53:24.958 --> 00:53:26.202

한마디만 하면 돼요.

00:53:26.302 --> 00:53:27.841

광어 먹고 있습니다, 여러분이.

00:53:27.941 --> 00:53:30.497

그런데 문성근 씨가
회 나오자마자 막 먹는 거야.

00:53:30.597 --> 00:53:31.947

그러니까 한마디 해주는 거야.

00:53:32.047 --> 00:53:35.665

문성근 씨, 광어 정량만 드세요.

00:53:35.765 --> 00:53:38.437

정족산성의 양현수, 이렇게만
기억하시면 됩니다.

00:53:38.537 --> 00:53:39.686

유치하죠? 죄송해요.

00:53:39.786 --> 00:53:44.414

문성근 씨가 강화도에서
광어를 많이 먹어서 정량만 먹어라.

00:53:44.514 --> 00:53:46.376

이렇게 나와 있죠.

00:53:46.476 --> 00:53:50.996

어쨌든 이 순서, 그다음에
광어 하나만 기억하고

00:53:51.096 --> 00:53:54.348

나머지는 병인양요라고
기억해도 어렵지가 않고요.

00:53:54.448 --> 00:53:57.022

신미양요 이후에는
우리가 뭐를 세웠다?

00:53:57.122 --> 00:54:01.265

척화비를 세우면서 서양과
싸울 것을 더욱더 해나갔고,

00:54:01.365 --> 00:54:05.276

그렇지만 73년도에
최익현의 상소에 의해서

00:54:05.376 --> 00:54:08.722

홍선대원군이 실각하는
모습이 있게 되었다.

00:54:08.822 --> 00:54:15.810

여기 보시면, 특히 경기도나
서울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

00:54:15.910 --> 00:54:19.615

여유 되시면 강화도 꼭 한번
놀러가 보기를 권합니다.

00:54:19.715 --> 00:54:22.073

서울 근처에 강화도죠?

00:54:22.173 --> 00:54:26.021

강화도 근처에 있는 지역 광정보.

00:54:26.121 --> 00:54:28.117

이렇게 가꿈 지도 문제도
나올 수 있거든요.

00:54:28.217 --> 00:54:30.926

광정보 다음에 누구요?
어재연 장군, 신미양요.

00:54:31.026 --> 00:54:35.035

그다음에 문수산성, 문성군 씨.

00:54:35.135 --> 00:54:36.642

문수산성에 한성군.

00:54:36.742 --> 00:54:38.625

그다음에 병인양요 때
활동이 있었고요.

00:54:38.725 --> 00:54:40.952

그다음에 양헌수는 뭐가 있었습니까?

00:54:41.052 --> 00:54:46.432

정족산성, 양헌수. 정량만 먹어라,
이거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

00:54:46.532 --> 00:54:49.623

이게 외규장각 도서입니다.

00:54:49.723 --> 00:54:54.621

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
외규장각에 보관 중이던

00:54:54.721 --> 00:54:57.705

의궤를 비롯한 왕실
서적을 약탈하였다.

00:54:57.805 --> 00:55:02.799

이 서적은 2011년 영구 임대
방식으로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도

00:55:02.899 --> 00:55:04.171

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.

00:55:04.271 --> 00:55:05.874

척화비, 이게 뭔지 아시죠?

00:55:05.974 --> 00:55:09.476

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 데도
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,

00:55:09.576 --> 00:55:11.525

화친을 주장하는 것은
나라를 파는 것이다.

00:55:11.625 --> 00:55:16.163

이런 글을 전국 각지에
척화비로 세워놨다고 합니다.

00:55:16.263 --> 00:55:17.950

서양 세력 올 때 우리는
무조건 싸워야 된다,

00:55:18.050 --> 00:55:19.969

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요.

00:55:20.069 --> 00:55:24.252

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역사의
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.

00:55:24.352 --> 00:55:29.815

최익현의 상소에
의해서, 이제는 왜요?

00:55:29.915 --> 00:55:32.241

10년이 지나니까 아들이
22살이 된 거야.

00:55:32.341 --> 00:55:35.180

아니 20살 되면 왕할 수 있는데
당신 왜 하고 있습니까?

00:55:35.280 --> 00:55:37.857

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
말도 못하고 있을 때

00:55:37.957 --> 00:55:43.108

면암 최익현, 이분은 목이 날라가도
할 말은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.

00:55:43.208 --> 00:55:47.777

그래서 왕 나이 됐잖아.
너 뭐해?

00:55:47.877 --> 00:55:52.358
할 말이 없어, 그래서 홍선대원군은
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.

00:55:52.458 --> 00:55:55.046
사실 홍선대원군은 금방
부를 줄 알았대요.

00:55:55.146 --> 00:55:58.042
그때 말할 때 되게 슬퍼하더라고.

00:55:58.142 --> 00:55:59.995
금방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대?

00:56:00.095 --> 00:56:05.246
그러다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는
우리의 것을 지켜야 된다는

00:56:05.346 --> 00:56:06.768
위정척사파도 있었고.

00:56:06.868 --> 00:56:09.348
그러니까 위정척사파의 대부도
역시 홍선대원군이었던 거죠.

00:56:09.448 --> 00:56:11.023
통상수교거부 정책을 해나가니까.

00:56:11.123 --> 00:56:15.042
그거 말고 이제 우리도
개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?

00:56:15.142 --> 00:56:16.802
좀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야
되는 거 아니야?

00:56:16.902 --> 00:56:18.232
이런 사상도 있었어요.

00:56:18.332 --> 00:56:21.333
그런 움직임, 개화파의
움직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.

00:56:21.433 --> 00:56:23.450
첫 번째, 북학사상입니다.

00:56:23.550 --> 00:56:25.541
청나라 거도 배울 거 있으면
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?

00:56:25.641 --> 00:56:27.836
박지원, 홍대용,
박제가, 이덕우 등등의

00:56:27.936 --> 00:56:29.744
실학사상가들이 주장을 했었고요.

00:56:29.844 --> 00:56:33.718
그게 결과적으로는 박규수, 오경석,
유홍기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.

00:56:33.818 --> 00:56:38.658

이 움직임은 개화파라는 하나의
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.

00:56:38.758 --> 00:56:41.295

개화파는 크게 두 가지
움직임이 있었습니다.

00:56:41.395 --> 00:56:45.319

지금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라는
본인들의 소울,

00:56:45.419 --> 00:56:48.949

정신 세계는 지키면서
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는

00:56:49.049 --> 00:56:53.972

온전한 개혁을 하고 있으니 그런
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받아들이자.

00:56:54.072 --> 00:56:58.647

롤모델로 삼자는
온건개혁파가 있었습니다.

00:56:58.747 --> 00:57:02.771

그에 비해서 지금 발전하는 거 봐,
일본이 더 앞서 있잖아.

00:57:02.871 --> 00:57:05.531

일본의 문명 개화, 이거
우리가 받아들여야 돼.

00:57:05.631 --> 00:57:08.047

일본의 메이지유신, 우리도
그런 운동 해야 돼.

00:57:08.147 --> 00:57:09.675

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.

00:57:09.775 --> 00:57:15.196

김옥균, 박영효, 홍영식, 서광범
등등의 급진개화파도 있었다는 거

00:57:15.296 --> 00:57:16.888

봐줬으면 좋겠고요.

00:57:16.988 --> 00:57:22.326

이러한 움직임 가운데,
홍선대원군이 63년 실각하고요.

00:57:22.426 --> 00:57:25.255

75년도에 윤요호 사건,
강화도 근처에서

00:57:25.355 --> 00:57:28.572

함포 빵빵 쏘면서 일본이 우리한테
위협하게 되었던 것이죠.

00:57:28.672 --> 00:57:33.346

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76년도에

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.

00:57:33.446 --> 00:57:37.317

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
조일 수호 조규예요.

00:57:37.417 --> 00:57:40.498

그런데 사실 조일 수호
조규라는 표현보다는

00:57:40.598 --> 00:57:43.740

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
강화도 조약이라 그러죠.

00:57:43.840 --> 00:57:46.457

이 강화도 조약의
가장 핵심적인 거.

00:57:46.557 --> 00:57:49.641

뭐니뭐니해도 최초의
근대적 조약이다.

00:57:49.741 --> 00:57:52.926

이 표현 잘 나옵니다,
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.

00:57:53.026 --> 00:57:55.134

물론 이거는 일본과 맺었습니다.

00:57:55.234 --> 00:57:58.265

그다음에 시험 문제는
이게 더 많이 나오죠.

00:57:58.365 --> 00:58:00.235

그렇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.

00:58:00.335 --> 00:58:02.597

그러면 왜 불평등했는지 볼까요?

00:58:02.697 --> 00:58:06.082

해안측량권.

00:58:06.182 --> 00:58:09.864

지금 이 수업 듣고 있는
여학생들 몸무게 몇 kg이에요?

00:58:09.964 --> 00:58:12.265

이거 엄청나게 충격 받았죠?

00:58:12.365 --> 00:58:17.205

몸무게를 묻는 것도 실례죠.

00:58:17.305 --> 00:58:19.838

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

00:58:19.938 --> 00:58:21.802

여러분의 신체 사이즈를
막 재고 있어요.

00:58:21.902 --> 00:58:24.810

머리 둘레, 허레 둘레, 허벅지

둘레 막 재고 있어요.

00:58:24.910 --> 00:58:26.422

어떻습니까?
말이 됩니까?

00:58:26.522 --> 00:58:29.009

안 되죠, 이거는 우리가
허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

00:58:29.109 --> 00:58:33.144

하물며 개인의 신체
사이즈도 그런데.

00:58:33.244 --> 00:58:36.336

저도 누가 와서 제 배 둘레 재고
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.

00:58:36.436 --> 00:58:39.918

그런데 국가의 해안선을
측량한다는 거는

00:58:40.018 --> 00:58:41.667

그 국가의 엄청난 자주성이에요.

00:58:41.767 --> 00:58:48.568

특히 해안선 침략은 그 나라를
침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,

00:58:48.668 --> 00:58:50.098

암초 같은 게 걸리거든요.

00:58:50.198 --> 00:58:52.278

그래서 그거를 측량하는 게
되게 중요해요.

00:58:52.378 --> 00:58:55.485

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해안선을
측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00:58:55.585 --> 00:58:58.412

이거는 나 이제 머지않아
너네 침략할 거야.

00:58:58.512 --> 00:59:00.317

그런 불평등한 내용이 있는 거죠.

00:59:00.417 --> 00:59:02.217

그다음에 치외법권입니다.

00:59:02.317 --> 00:59:05.724

치외법권이랑 같은 말이
영사재판권이에요.

00:59:05.824 --> 00:59:07.645

영사가 재판한다.

00:59:07.745 --> 00:59:12.348

그러니까 일본인이
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지르면

00:59:12.448 --> 00:59:15.838

우리나라 판사가 그 사람을
처벌하는 게 아니라

00:59:15.938 --> 00:59:19.447

우리나라 안에 와
있는 일본인 영사관,

00:59:19.547 --> 00:59:22.684

즉 외교관 대사가 재판한다는 거예요.

00:59:22.784 --> 00:59:25.056

이게 영사재판권이예요,
이게 치외법권이죠.

00:59:25.156 --> 00:59:26.811

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.

00:59:26.911 --> 00:59:30.599

하긴 이것도 사실 불평등한 내용의
하나이기도 합니다, 개항.

00:59:30.699 --> 00:59:32.594

그런데 여기는 넣어도
되고 안 넣어도 돼요.

00:59:32.694 --> 00:59:35.739

개항은 사실 우리나라가 요구한
측면도 있을 테니까.

00:59:35.839 --> 00:59:38.510

부산 외 2개항을
개항한다고 했었거든요.

00:59:38.610 --> 00:59:41.194

그래서 76년도에
부산이 개항되고요.

00:59:41.294 --> 00:59:43.239

그다음에 80년도에 원산.

00:59:43.339 --> 00:59:48.446

그다음에 83년도에 인천, 이렇게
순차적으로 개항이 되었습니다.

00:59:48.546 --> 00:59:50.281

개항도 여기 들어갑니다.

00:59:50.381 --> 00:59:53.687

부산, 원산, 인천
이렇게 들어가고요.

00:59:53.787 --> 00:59:56.302

그런데 시험 문제에 많이
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

00:59:56.402 --> 00:59:58.627

최혜국 대우가 빠진다고,
이거 꼭 체크해두세요.

00:59:58.727 --> 01:00:00.077

최혜국 대우가 됩니까?

01:00:00.177 --> 01:00:03.884

최고의 혜택 받는 국가로서
대우해준다는 거거든요.

01:00:03.984 --> 01:00:05.967

여기 A라는 국가가 있어요.

01:00:06.067 --> 01:00:07.362

보니까 너무 잘해요.

01:00:07.462 --> 01:00:09.204

너는 진짜 너무 잘한다.

01:00:09.304 --> 01:00:12.007

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
5000원씩 주기로 했어요.

01:00:12.107 --> 01:00:14.364

그런데 여기 B라는 국가가
나한테 더 잘하는 거야.

01:00:14.464 --> 01:00:18.672

너 정말 잘한다, 그리고 애한테
1만 원씩을 주기로 했어요.

01:00:18.772 --> 01:00:20.705

여러분이 A라는 국가예요.
짜증나요, 안 나요?

01:00:20.805 --> 01:00:23.499

넌 필요가 없어.
왜?

01:00:23.599 --> 01:00:26.650

5000원씩을 주고 최혜국
대우 조건을 내밀었거든요.

01:00:26.750 --> 01:00:29.448

너는 언제나 나한테 최고의
혜택을 받는 국가가 될 거야.

01:00:29.548 --> 01:00:32.585

이렇게 해줬으면 애한테
1만 원을 주는 순간,

01:00:32.685 --> 01:00:35.549

최고의 국가가 아니잖아요,
최고의 혜택이 아니잖아요.

01:00:35.649 --> 01:00:40.985

1만 원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권을
자동적으로 이쪽에도 줘야 돼요.

01:00:41.085 --> 01:00:43.163

왜? 이쪽이 최혜국 대우로
인정해줬기 때문에.

01:00:43.263 --> 01:00:44.934

선생님, 그런 게 어디있어요?

01:00:45.034 --> 01:00:47.665
당시의 외교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.

01:00:47.765 --> 01:00:51.274
그래서 이거 받게 되면 언제나
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

01:00:51.374 --> 01:00:52.675
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.

01:00:52.775 --> 01:00:54.276
그래서 엄청난 불평등한 내용인데,

01:00:54.376 --> 01:00:57.425
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최혜국
대우로 인정해준 건

01:00:57.525 --> 01:01:01.818
1882년 미국과의
조약 때문입니다.

01:01:01.918 --> 01:01:06.085
일본과 이때는 강화도 조약에서
최혜국 대우가 없었다는 거.

01:01:06.185 --> 01:01:07.244
이거 꼭 기억해두세요.

01:01:07.344 --> 01:01:09.282
시험 문제 나옵니다,
이거 나옵니다.

01:01:09.382 --> 01:01:12.507
그래서 강화도 조약은
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

01:01:12.607 --> 01:01:15.800
불평등한 조약이고 개항도 하고

01:01:15.900 --> 01:01:18.951
해안측량권도, 치외법권도
인정해줬지만

01:01:19.051 --> 01:01:20.455
최혜국 대우는 빠졌다는 거.

01:01:20.555 --> 01:01:21.766
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.

01:01:21.866 --> 01:01:24.088
사실 여기서는 경제적인
내용은 별로 없죠?

01:01:24.188 --> 01:01:27.757
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속조약이
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

01:01:27.857 --> 01:01:33.355
조일무역규칙이 있었고요.

01:01:33.455 --> 01:01:37.479

그다음에 조일수호조규부록.

01:01:37.579 --> 01:01:40.709

부록, 여러분 뭐
사면 꺼주는 거 있죠?

01:01:40.809 --> 01:01:42.507

부록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1:01:42.607 --> 01:01:46.109

조일무역규칙에는 3무예요.

01:01:46.209 --> 01:01:51.815

우리과 일본과의 교역 가운데서
관세를 내지 않는다.

01:01:51.915 --> 01:01:56.338

관세가 뭘니까?
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할 때

01:01:56.438 --> 01:01:59.176

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
관세를 책정할 수 있거든요.

01:01:59.276 --> 01:02:01.341

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.

01:02:01.441 --> 01:02:03.851

우리나라가 일본에 관세를
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.

01:02:03.951 --> 01:02:06.916

항구를 이용해도 항구세를
내지 않는다, 무항세.

01:02:07.016 --> 01:02:12.034

그다음에 우리나라 곡물이 일본으로
무제한 유출될 수 있도록 한다.

01:02:12.134 --> 01:02:13.728

곡물의 무제한 유출.

01:02:13.828 --> 01:02:16.567

무관세, 무항세, 무제한 유출.

01:02:16.667 --> 01:02:19.338

이게 조일무역규칙, 3무.

01:02:19.438 --> 01:02:21.093

3개의 무가 있습니다.

01:02:21.193 --> 01:02:23.655

그다음에 조일수호조규부록,
이거랑 똑같다 그랬죠?

01:02:23.755 --> 01:02:28.970

조일수호조규부록, 부록에는
외교관의 자유 여행.

01:02:29.070 --> 01:02:34.356

그다음에 개항장 내에서의 일본 화폐가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요.

01:02:34.456 --> 01:02:36.556

이중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.

01:02:36.656 --> 01:02:38.826

개항장에 거류지가 설정되었다.

01:02:38.926 --> 01:02:40.850

거류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.

01:02:40.950 --> 01:02:43.525

여기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봅시다.

01:02:43.625 --> 01:02:46.761

여기가 부산이에요,
부산을 개항했어요.

01:02:46.861 --> 01:02:51.781

그러면 여기 안에서 개항장에서 직선 거리로 4Km.

01:02:51.881 --> 01:02:53.493

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?

01:02:53.593 --> 01:02:58.366

여기 안에서만 교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

01:02:58.466 --> 01:03:01.697

일본 상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

01:03:01.797 --> 01:03:06.893

만약에 우리나라 농촌에서 만들어진 것을

01:03:06.993 --> 01:03:08.864

여기로 누군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.

01:03:08.964 --> 01:03:10.647

조선 상인들이 갖고 와야 돼요.

01:03:10.747 --> 01:03:14.703

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일본 상인들과 교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.

01:03:14.803 --> 01:03:20.094

이 지역을 뭐라고 해요?
거류지라고 불러요.

01:03:20.194 --> 01:03:22.422

거류지가 설정되었다고 표현합니다.

01:03:22.522 --> 01:03:23.766

이거 기억해둬야 돼요.

01:03:23.866 --> 01:03:25.643

그래서 조일무역규칙,
조일수호조규부록.

01:03:25.743 --> 01:03:27.487
이런 것들이 있었고요.

01:03:27.587 --> 01:03:29.798
강화도 조약의 내용
한번 보겠습니다.

01:03:29.898 --> 01:03:31.553
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

01:03:31.653 --> 01:03:35.311
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
평등한 권리를 갖는다.

01:03:35.411 --> 01:03:38.478
조선은 부산 외에 두 곳
원산, 제물포를 개항하고

01:03:38.578 --> 01:03:41.658
일본인의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.

01:03:41.758 --> 01:03:46.669
조선은 일본 항해자가 자유로이
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.

01:03:46.769 --> 01:03:49.779
일본 인민이 조선 지정의 각
항구에서 머무르는 동안

01:03:49.879 --> 01:03:53.139
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과
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

01:03:53.239 --> 01:03:55.543
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.

01:03:55.643 --> 01:03:59.183
이게 뭐예요? 치외법권,
영사재판권 이런 것까지

01:03:59.283 --> 01:04:02.374
같이 들어간다는 거
봐됐으면 좋겠고요.

01:04:02.474 --> 01:04:04.912
그 이후, 76년
이후 어떻게 됩니까?

01:04:05.012 --> 01:04:13.071
우리나라는 더 일본 중심으로
개화 정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

01:04:13.171 --> 01:04:15.834
그래서 76년부터
82년까지라고 했죠?

01:04:15.934 --> 01:04:18.487
이게 개화 추진기가 되겠고요.

01:04:18.587 --> 01:04:21.059

여기에 있는 내용들은
제가 다음 강에

01:04:21.159 --> 01:04:23.627

조금 더 자세히
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
01:04:23.727 --> 01:04:26.974

이 내용까지 같이
봐줬으면 좋겠고요.

01:04:27.074 --> 01:04:29.439

여러분, 오늘 뭐 배웠습니까?

01:04:29.539 --> 01:04:31.885

우리 근현대사의 전체적인
시작 배웠고요.

01:04:31.985 --> 01:04:35.430

그것으로 인해서 세도 정치
이후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치.

01:04:35.530 --> 01:04:37.744

그다음에 통상수교거부정책.

01:04:37.844 --> 01:04:41.331

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물러가고
나서 누가 등장하게 되었다?

01:04:41.431 --> 01:04:43.097

강화도 조약이 오게 되었다.

01:04:43.197 --> 01:04:47.335

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들까지
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

01:04:47.435 --> 01:04:49.171

좋습니다, 여러분.
수고 수고 많았고요.

01:04:49.271 --> 01:04:51.615

다음 강에는 강화도 조약 이후

01:04:51.715 --> 01:04:54.594

우리나라가 어떤 개화의 움직임에,

01:04:54.694 --> 01:04:57.920

개화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지
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

01:04:58.020 --> 01:04:59.301

수고 수고 많았고요.

01:04:59.401 --> 01:05:02.331

다음 2강에서 더 즐거운
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
01:05:02.431 --> 01:05:09.005

인사 드리고 마칠게요.

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~